

리아호나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 28쪽

크리스토퍼슨 장로를 만나다, 8쪽

시험을 통과함, 38쪽

다음엔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친10쪽





세 계 곳곳의 많은 교회
 회원들처럼,
 이탈리아의 후기
 성도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복음
 성약을 이어가는 가족을 형성하는
 일에서 개척자들이다. 이 교회
 회원들은 주변 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옛 전통과 세속주의에 직면해
 있지만, 구주에게 초점을 맞추고
 후손의 마음에서 번성하게 될 신앙을
 키우고자 노력한다. “가족의 신앙”,
 28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문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비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제이 이 잰스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요시히코 기무라,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셴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히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머,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리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셀리 제이 오데카크, 주디스 엠 팔라, 조슈아 제이 퍼키, 쉐인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털
선임 비서: 로벨 튜서

관리 미술 책임자: 엘 엘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뱀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갤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르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랜디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크리스 제이 벤슨

통 권: 제 509호, 제45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한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는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 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 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 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 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자부하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에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첨판 혹은 지사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에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디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ugust 2008 Vol. 32 No. 8. U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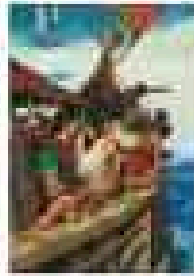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8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쿠엔틴 엘 쿡 장로
- 18 정숙함: 주님께 대한 경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모든 자매는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딸이며 신성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 28 가족의 신앙 김벌리 리드
- 41 경건 공부를 계속함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성당의 찬송가 콜린 앨런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황금 구도자 페리 더블류 카터
빵과 간증 비다 에이치 리델
나는 정말 알고 있었던 것일까? 저스틴 제라시타노

48 애독자 편지

표지
사진 촬영: 김벌리 리드

친구들 표지
삽화: 로저 모즈쿠스

25 방문 교육 메시지



18
정숙함: 주님께
대한 경건

41
경건 공부를
계속함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정숙함: 주님께 대한 경건”,
18쪽: “성전 참석을 위한 정숙한
복장”을 읽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두 문단에 나와
있는 질문에 답하도록 권유한다.(토론을
하면서 자녀들이 정숙하고 적절한
복장을 입었던 때를 상기시켜 준다.)
가족들에게 학교나 직장, 또는 사교
모임 등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지 토론하도록
권유한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년, 14쪽 참조)



“영원한 가족을 세움”, 34쪽: 견고한
기반의 중요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블록으로 작은 탑을 쌓는다.

그런 다음 맨 아래에서 블록
하나를 빼낸다. 이 기사를
나누면서 가족들에게 디
호요스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의 이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견고한 기반을 쌓았는지
알아보게 한다. 여러분의 가족이
가족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한다.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 38쪽: 종이 몇 조각에 여러분의
가족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니파이의 부러진 활, 제레미 윈보그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양식을 잡으러 나아갔다가, 보라, 나는 좋은 강철로 만들어진 나의 활을 부러뜨렸느니라. 내가 내 활을 부러뜨리고 난 후, 보라, 내 활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나의 형들이 내게 성을 내었나니 이는 우리가 아무 양식도 얻지 못하였음이라.”(니파이전서 16:18)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사모아어 정의반 반지를 찾는 동안
여러분이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어떻게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14 빵과 물 이상의 것 라이언 카
- 17 포스터: 영적 진지
- 24 조셉의 가르침: 사망 때에 주는 위안
- 26 질의응답: 제게는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34 영원한 가족을 세움 벤자민 디 호요스 장로
- 38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 아담 시 울슨

34 영원한 가족을 세움



적는다.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나눈 후 짧은 기사 “주님의 교과서”를 읽는다. 가족들이 종이 한 조각을 고르고 그 위에 적힌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 구절을 찾아 보도록 한다.

“다음엔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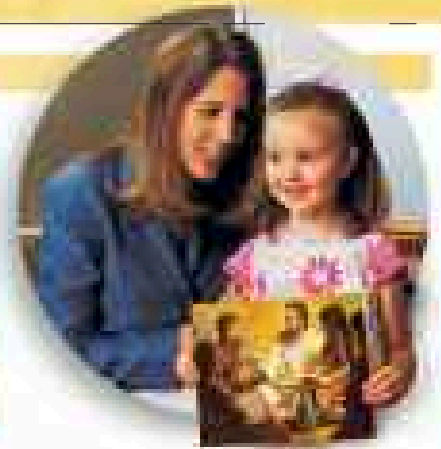
친10쪽: 성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다음 게임을 한다. 가족 한 명이 방에서 나가 있도록 한다. 주님의 그림 한 장을 방 안에 숨긴다. 나가 있던 사람이 들어와 그림을 찾도록 한다. 그가 그림에 가까워지면 “뜨겁다”고 말하고 멀어지면 “차갑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인도한다. 마누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11편 12절을 읽음으로써 마무리한다.

“파블로의 실천”, 친14쪽: 파블로의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르치기, 다림질, 계획 세우기, 또는 경전 공부 등과 같이 선교사들이 배워야 하는 기술 한 가지에 대해 훈련한다.(그 밖의 제언을 위해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참조) 간식을 만드는 요리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선교 사업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계획한다.



친13 색칠하기



친12 특별한 증언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힘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하늘 왕국 린다 크리스티슨
-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의 여행 동안 일어난 기적
- 친8 저는 경건할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 에커셀 켈슨
- 친10 다음엔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서니 맥클레란 모튼
- 친12 특별한 증언: 어떻게 제가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친13 색칠하기
- 친14 친구 사귀기: 파블로의 실천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각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친구들	속죄, 14쪽
가르침, 1, 6, 28쪽	순종, 38쪽
가족, 28, 34쪽, 친14쪽	스미스, 조셉, 47쪽, 친6쪽
간증, 26, 46, 47쪽, 친2쪽	시험, 38쪽
경건, 14, 18쪽, 친8쪽	신권, 아론, 14쪽
경전, 34, 38, 41쪽	신성한 성품, 25쪽
교육, 38쪽	신앙, 25, 28쪽, 친13쪽
기도, 26, 46쪽	예수 그리스도, 2, 14쪽
방문 교육, 25, 46쪽	음악, 44쪽
보호, 18쪽, 친10, 친12쪽	정숙함, 18쪽
복장, 14, 18쪽	축복, 46쪽, 친6쪽
봉사, 2, 14쪽	친구들, 26, 34쪽
부활, 2쪽	침례, 친4, 친13, 친14쪽
사망, 2, 24쪽	하나님 아버지, 25, 34쪽
선교 사업, 44, 45, 47쪽, 친10, 친14쪽	합당성, 14, 18쪽
성신, 18쪽, 친4, 친10쪽	확인, 친4쪽
성전, 18쪽	활동 촉진, 26쪽
성찬, 14, 17, 34쪽	회개, 14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갑 자기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거의 7년 전 9월의 화창한 어느 날 두 대의 비행기가 뉴욕 시 세계 무역 센터의 쌍둥이 빌딩과 충돌하여 황폐한 파괴와 죽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워싱턴 디시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음모로 두 대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계획은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슬픔의 눈물과 고통의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보고는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레베카 신다 자매는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텍사스 주 댈러스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탄 비행기는 당시 미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다른 모든 비행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순간 비상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텍사스 주 애머빌로에 착륙했습니다. 신다 자매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 텔레비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했음을 알려주는 전화를 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선교 임지로 가는

중이었던 12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전화를 하였고,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이 공항 한 구석에 둥글게 둘러모여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그 훌륭한 청년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들과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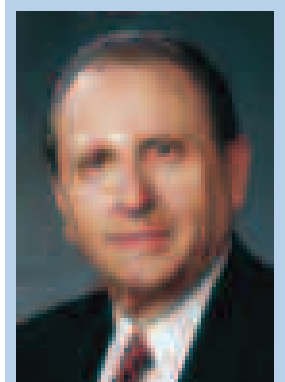
떨쳐진 죽음의 암흑

죽음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옵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휘청거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옵니다. 죽음의 소환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도에도 이르지 못한 자들의 귀에도 들리며, 많은 경우 어린아이들의 웃음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죽음은 종종 침입자의 모습을 띠니다. 그것은 인생의 축제 도중 갑자기 나타나 빛과 즐거움을 소멸시키는 적입니다. 죽음은 그 무거운 손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위에 얹으며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불안하게 합니다. 크나큰 고통과 질병을 안고 있는 상황과 같은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자비의 천사로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죽음의 암흑은 계시된 진리의 빛으로 영원히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삶은 얼마나 덧없으며 죽음은 또 얼마나 자명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언제 현세를 떠나도록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오늘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 샘 로라, 필드로 표기된 곳 제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시고 승영하신
그리스도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이후 주님을
섬기는 진리의 수호자이자
두려움 없는 선교사
바울로서 그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 말하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¹

무덤을 넘어선 삶에 대한 이러한 확신, 곧
거룩한 확인은 구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셨을 때 약속하신 그 평안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²

갈보리의 암흑과 공포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린 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³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암흑은 더
이상 암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한 그분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같이 이 지상의
여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은 그분께서는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축복된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암흑 속에서도 그분의 존재는
“빛보다 낮고 잘 알려진 길보다 안전”합니다.”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시고
승영하신 그리스도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이후
주님을 섬기는 진리의 수호자이자 두려움 없는
선교사 바울로서 그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
말하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 내게도 보이셨느니라.”⁵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와 똑같은 간증을 대담하게 전했습니다. 그와
시드니 리그돈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⁶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위안을 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비탄에 잠겨 있는 자들을 그늘에서 빛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함

삶은 얼마나 덧없으며 죽음은 또 얼마나 자명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언제 현세를 떠나도록 부름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오늘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수많은 텅 빈 어제만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몇몇 부분을 개선해 볼까 생각 중인데, 내일 시작해야겠다.”라고 단언하는 과오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이라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일은 오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지금 주 위해 일할 기회 많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뒷날 하리라고 미루지 말아라
오늘 나가 선 행하라.⁷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는가? 궁핍한 사람을 도왔는가?” 행복을 위한 이 얼마나 훌륭한 공식입니까! 이 얼마나 만족과 내면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놀라운 방법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는 참으로 무한하지만, 그것은 또한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쁘게 해 주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전해야 할 친절한 말들이 있습니다. 주어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우리가 지쳐 있는 손 하나를 들어올릴 수 있고 괴로워하는 한 영혼에게 평안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줌으로써 길 잃은 자에게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찰스 디킨즈의 불후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에버니저 스크루지에게 이야기했던 제이콥 말리 유행의 서글픈 처지에는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리는 잃어버린 기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자신의 짧은 삶에서 친절을 베풀 때, 이 지상에서의 삶은 친절과 선을 행하기에도 너무 짧지만 하다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네. 지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허비해버린 삶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도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그걸 몰랐다네! 아, 나는 그걸 몰랐다네!”

말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눈을 내리깔고 그들을 보려하지 않았으며, 박사들을 초라한 거처로 인도했던 그 축복된 별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던가? 그 별빛이 나를 인도하려 했던 가난한 자들이 내 주위에는 없었던 말인가?”

다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버니저 스크루지는 그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난 날의 내가 아니다”⁹라는 그의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을까요? 왜 늘 새로운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변화하도록 동기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길에서 벗어나 노래로 가득한 마음으로 별을 따라 빛을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더 빨리할 수 있고 용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진리의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좀 더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나눔으로써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는 손 하나를 들어올릴 수 있고 괴로워하는 한 영혼에게 평안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줌으로써 길 잃은 자에게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움

삶은 덧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오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 진리를 생생히 나타내 주는 루이스 디킨슨 리치가 쓴 따뜻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윌콕스 부인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윌콕스 부인은 신혼 시절, 그들이 평생 살게 된 한 작은 마을의 중심가에서 서로 옆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전쟁이 무엇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모르는데, 삼십 년도 더 지난 후 제가 태어났을 즈음에는 본인들도 그 원인을 기억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 간의 싸움은 예의를 갖춘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력전이었습니다. ...

“마을의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의 전쟁과 다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 독립 혁명, 남북 전쟁, 미서 전쟁을 견뎌내고 300년간 존속되었던 교회도 할머니와 윌콕스 부인 간의 여성조력회에 관한 다툼 때문에 거의 붕괴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싸움에서 이겼지만, 승리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윌콕스 부인은 여성조력회의 회장이 되지 못하자 노여워하며 그 모임에서 탈퇴했습니다. 원수를 쥐고 흔들 일이 없는데 그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대신 윌콕스 부인은 공공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싸움에서 이겼고, 도서관 사서로 필리스 이모 대신 그녀의 조카딸 거트루드를 임명했습니다. 거트루드가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한 날, 할머니는 도서관 책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서관의 책들은 할머니들에게 “더러운 세균 덩어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고등학교의 전쟁은 무승부였습니다. 교장은 윌콕스 부인이 그를 학교에서 쫓아내 버리거나 또는 할머니가 그에게 종신 재직권을 주기 전에 미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재미있었던 일 중 하나는 윌콕스 부인의 손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심심긋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념일에 우리는 윌콕스 부인 집의 빗물 받는 통에 뱀을 한 마리 집어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리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는 웬지 모를 무언의 동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이 일방적인 전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윌콕스 부인에게도 손자 손녀들은 있었고, 할머니도 그런 일을 당하시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세탁을 한 날 바람이 불면 어찌서인지 빨랫줄이 끊어져서 옷이 흙 위로 떨어져 뒹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그분이 즐겨보시던 보스턴 일간지의 가사 면이 없었더라면 할머니는 이런 힘든 문제들과 시기들을 견뎌내시기가 훨씬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 면은

매우 훌륭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면에는 일상적인 요리 비법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정보 외에도 독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로 구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독자들은 신문에 ‘아르부투스’와 같은 특이한 이름으로 서명한 편지를 보냅니다. 아르부투스는 할머니의 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같은 문제를 겪었던 다른 여성들이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크산티페’ 등의 필명으로 답장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이 여성들은 신문 컬럼을 통해 계속해서 서로 편지하며 자녀들, 통조림 만들기, 새로 꾸민 식당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할머니와 ‘갈매기’라는 한 여성은 25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갈매기’는 할머니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열여섯 살 쯤 되었을 때 윌콕스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옆집 이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간에, 유족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일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과 함께 어떻게 “죽음의 암흑을 계시된 진리의 빛으로 영원히 떨쳐” 버릴 수 있는지 토론한다. 기사 중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을 읽는다. 이러한 진리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2. “오늘 무엇인가를 함” 부분에 나오는 행복을 위한 공식을 가리킨다. 찬송가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를 부르거나 읽는다. 가족들에게 왜 이 공식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3. 가족들에게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을 열거해 보라고 한다. 루이스 디킨슨 리치가 쓴 이야기와 몬슨 회장님의 메시지 중 마지막 문단을 읽는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들이 후회 없이 기쁨으로 가득한 좋은 인생을 살수 있도록 격려한다.

예의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일하러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명 앞치마를 단정히 두르고 마당을 건너 월콕스 부인의 집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부인의 딸들은 장례식을 위해 이미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응접실 청소를 할머니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을 기리는 유품이 놓인 응접실 탁자 위에는 커다란 스크랩북이 있었습니다. 스크랩북을 열자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할머니가 '갈매기'에게 보냈던 편지들, 그리고 '갈매기'의 답장들이 나란히,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몰랐지만, 할머니의 최대의 원수는 바로 할머니의 최고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외에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가 왜 우시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할머니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다툼과 증오로 얼룩진 세월에 대해 우셨던 것입니다.¹⁰

우리가 앞으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도록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낙담했거나 어떤 일로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삶에 포용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¹¹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후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될 때, 우리에게 심각한 후회나 끝내지 못한 일이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¹²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주

1. 요한복음 11:25~26.
2. 요한복음 14:27.
3. 누가복음 23:46.
4. 미니 루이스 헤이스킨스, “The Gate of the Year,”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 (1948년), 92쪽.
5. 고린도전서 15:3~8.
6. 교리와 성약 76:22~24.
7. 윌 엘 톰슨,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8. 모사이아서 2:17.
9.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1990년), 34, 138쪽.
10. “Grandma and the Seagull,” 엘리스 알렌의 *She Took to the Woods: A Biography and Selected Writings of Louise Dickinson Rich* (2000년) 중, 211~213쪽.
11. 찬송가, 182장.
12. 디모데후서 4:7.

스 크랩북을 열자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할머니가 '갈매기'에게 보냈던 편지들, 그리고 '갈매기'의 답장들이 나란히,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몰랐지만, 할머니의 최대의 원수는 바로 할머니의 최고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됨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뉴 저지 주 서머셋에서 십대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토드 크리스토퍼슨은 두 해 여름 동안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에서 쿠모라 산 야외 공연단의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이 작품에 참여했던 첫 해에 어린 토드는 이전 감독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감독님은 와드 청소년들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이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를” 때까지 결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토드는 신권 지도자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때때로 자신의 간증에 대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요람인 그곳 팔마이라에 있던 그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분명한 확신을 얻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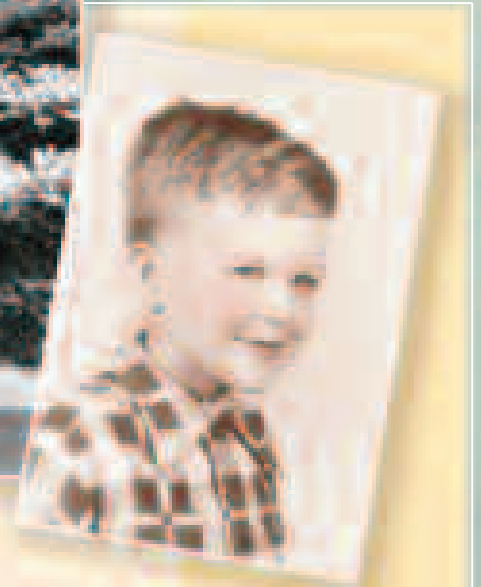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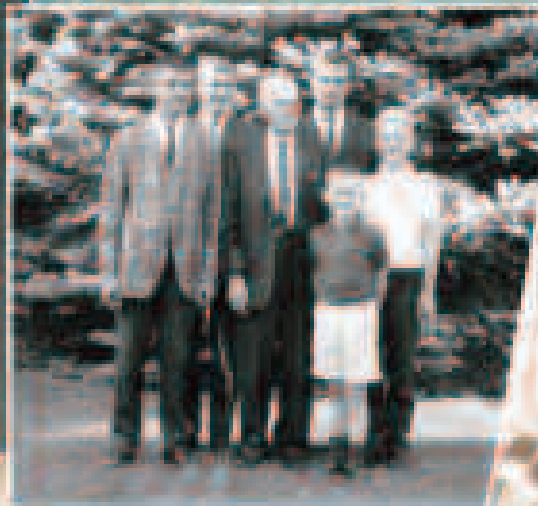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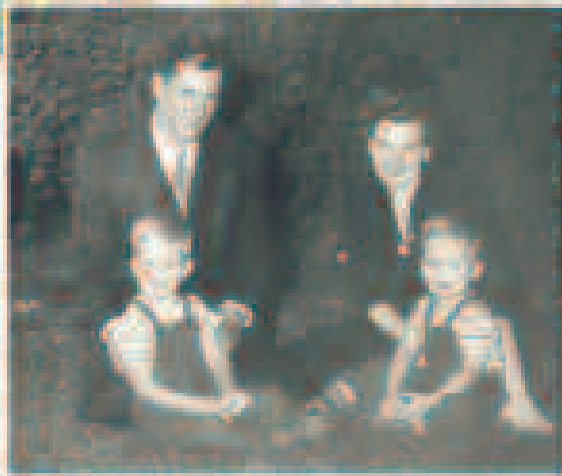
“어느 날 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혼자서 성스러운 숲으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그는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된 걸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 2주에 걸쳐 진행된 야외 공연이 끝났고 토드는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약 한 달 후, 집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몰몬경을 읽으며 그는 자신이 찾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주어졌지만 저는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는,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에 대한 매우 강력한 영적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 또는 어떻게 말씀해 달라고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과 그 시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밤 팔마이라에서 제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간증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것이나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위해 팔마이라로 성지 순례를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뉴저지 주 서머싯에 있는 저를 발견하셨다면, 그분은 세상 어느 곳에 있던 누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시며, 우리의 위치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속의 “타오르는” 간증을 지닌 토드 크리스토퍼슨은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기 위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린 시절

1945년 1월 24일, 데이비드 토드 크리스토퍼슨은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에서 폴 비커리와 제인 스웬스 크리스토퍼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 부친은 중국에서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토드와 어머니는 외조부모인 헬즈와 아데나 스웬슨과 함께 약 18 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토드는 외조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이 관계는 그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토드와 네 명의 남동생들은 유타 주 플레전트 그로브와 린든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묘사하는 것처럼 “전원 속에서의 평화롭고 건전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유롭게 놀고, 창작하며, 배우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신들의 모범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셨고, 복음의 규범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보여 주셨습니다.”라고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회상합니다.

그의 부모 역시 토드를 순종적이고 행복한 아들로 기억합니다. “토드는 착한 아이였고, 항상 자신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그의 부친은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곳이 어디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토드가 13세였을 때, 어머니는 암 치료의 일환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려고 토드가 남동생들을 모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크리스토퍼슨 자매는 몇몇 일상적인 가사일을

맞은편 페이지: 1962년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의 쿠모라 산 야외 공연단에 참가한 십대의 토드 크리스토퍼슨.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948년 부모님과 남동생 그레그(오른쪽)와 함께 하고 있는 토드; 1964년 할아버지 헬즈 스웬슨과 함께 한 크리스토퍼슨가의 형제들: 팀, 토드, 그레그, 톰, 웨이드; 약 6세쯤 되었을 때의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어린 시절을 “전원 속에서의 평화롭고 건전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하는 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토드는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빵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으며, 대학에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날 때까지 수년간 가족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965년 아르헨티나

살타에서 선교사

동반자인 글렌

윌라드슨과 함께하고

있는 크리스토퍼슨

장로(왼쪽); 1966년

침례식에서의

크리스토퍼슨 장로.

맞은편 페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968년,

결혼식 날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크리스토퍼슨 장로 내외;

1977년 자녀인 토드와

브리과 함께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슨 장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연기하고 있다; 1976년

미 합중국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크리스토퍼슨 가족

새로운 가정, 새로운 경험

토드가 15세 무렵이었을 때, 수의사였던 아버지는 뉴저지 주 뉴브런즈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가족이 이사할 무렵, 유타 주 린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뉴저지에 정착하는 것은 크리스토퍼슨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장소, 사람들, 그리고 기회로 가득했던 그 후 몇 년은 토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급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던 토드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의 우정과 교제를 즐겼는데,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일이었습니다. 토드는 친구들 중 상당수가 자신처럼 스스로의 믿음에 매우 충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단지 좋은 것만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만큼이나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와 함께 16년 이상 같은 방을 사용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동생, 그레그 크리스토퍼슨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형은 항상

영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였고,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레그는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형과 같은 반이었던 한 훌륭한 친구가 아내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친구는 자신이 알고 있던 유일한 후기 성도였던 토드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했고, 그로 인해 그는 선교사들을 집안으로 초대하여 결국 그와 가족들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토드의 자라나는 간증은 쿠모라 산 야외 공연 이후의 경험으로 굳건해졌으며, 뉴저지 스테이크 뉴브런즈윅 와드 후기 성도 청소년이었던 강하고 협조적인 또래 친구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그들과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 늘 함께였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게 해 주었고, 우리가 와드의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었습니다.”라고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회상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선교 사업

서머셋에서 프랭클린 고등학교를 졸업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1년 동안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닌 후 1964년 9월에 아르헨티나 북 선교부로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일이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사랑은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두 명의 탁월한 선교부 회장”이었던 로널드 브이

스톤 회장과 지금 십이사도 정원회의 동료 회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큰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선교부 회장과 그 아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스코트 장로는 크리스토퍼슨 장로를 “범상치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매우 탁월한 선교사”로 기억합니다. 스코트 장로는 이 젊은 장로가 특별히 잘 훈련되어 있었고 순종적이고 근면했으며, 그가 보여준 “영의 부드러움은 그의 모든 동반자들을 축복했을 뿐 아니라 구도자들과 개종자들이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스코트 장로는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자전거 사고를 당해 옷이 해지고 손에 상처를 입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코트 장로는 “그는 스스로 몸을 털고 일어나 자전거에 올라탔으며, 그의 동반자와 함께 약속 장소를 향해 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학과 결혼

1966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귀환한 후,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BYU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영어를 전공했으며, 학생 자치회와 교내 운동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선교 사업 후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캠퍼스에서 본 아름다운 젊은 여성에게 관심이 끌렸습니다. 비록 그가 그때 그녀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했고 2, 3개월 후 캠퍼스 연감이 출판되었을 때 그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캐시 제이콥이었으며, 캘리포니아와 유타에서 자란 매력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이듬해 가을, 토드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캐시와 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 개월 동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 상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라나고 깊어졌으며, 이듬해 봄인 1968년 5월 28일,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캐시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품과 자질, 지혜와 선함이 그토록 깊은지는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알던 것보다 그녀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기쁘게 놀라곤 합니다.”라고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말합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딸인 브린 너퍼도 그녀의 어머니의 선한 면모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뛰어난 창의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고 정말 재미있는 분이세요!”

법조인으로서 눈에 띄는 경력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아내는 1969년에 BYU를 함께 졸업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듀크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기 위해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1972년에 학업을 마쳤을 때, 그는 후에 워터게이트 재판을 관할한 존 제이 시리카 연방 판사의 법률 서기로 채용되었습니다. 타임지는 시리카 판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으며, 워터게이트 사건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불렀습니다.¹ 1973년과 1974년 사이의 미국 뉴스는 이 스캔들과 이에 대한 법률 재판에 관한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1년간 법률 서기로 일한 후에 그에게 채용을 제의한 워싱턴디씨의 유명한 법률 회사에서 일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는 랄프 더블류 하디 장로가 그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시리카 판사가 이 까다로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회사의 상임 파트너를 불러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난 토드를 떠나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능해요.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구요.” 그 결과 토드는 워터게이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리카 판사를 도왔습니다.

하디 장로는 함참 후인 1992년에, 후기 성도가 아닌 한 변호사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감탄의 말을 한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저는 그토록 영감에 찬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리카 판사를 위한 장례식이었으며, 시리카 판사의 가족은 크리스토퍼슨 장로에게 장례식에서 말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그곳에서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습니다.

서기 일을 마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미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했고 그 후 8년에 걸쳐 예비역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비역 대위로서 자신의 군복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법조인으로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도우 로네스 피엘엘씨(Dow Lohnes PLLC) 법률 회사에서 일했고 이후 건강 관리 조직 및 몇몇 금융 단체의 회사 자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칠십인 정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 그는 네이션스뱅크 주식회사(현재의 Bank of America)의 법률고문이었습니다. 직장상의 이유로 가족은 워싱턴디씨, 테네시 주 내슈빌, 버지니아 주 헨든 및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등지로 이사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그와 가족이 미국 동부 지역에 머문 수년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은 “모든 계층과 종교의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감독, 스테이크 회장 및 지역 대표로 봉사한 것 이외에도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 및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가족의 추억

크리스토퍼슨 부부에게는 토드, 브린, 피터, 라이언, 마이클, 이렇게 다섯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8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집안의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복음의 원리에 중심을 둔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즐거운 가족활동과 개인적인 훈련이 훌륭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기억합니다.

피터는 아버지가 특히 바빴던 시기에 아버지의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 동반자로 함께 봉사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회사 고문 및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을 내었습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도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아버지의 충실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한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매주 성찬을 취할 수 있고 그녀의 필요 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녀를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라고 피터는 회상합니다.

또한 딸 브린은 아버지를 매우 사려 깊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녀가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난 후 이틀이 지났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보낸 꽃을 기숙사에서 받았습니다. 꽃과 함께 보내온 쪽지에는 단순히 “좋은 학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셨지만 결코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행복하셨고, 우리 또한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칠십인 정원회에서의 봉사

1993년 4월 3일,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임무 지명을 받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시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동안 멕시코 남 지역의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1998년 8월 15일,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한 후 북미 남동 지역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북미 서북 지역과 북미 서 지역에 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칠십인 정원회와 칠십인 회장단에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함께 한 시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는 아주 유능하고,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며,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유머 감각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그와 함께 일하는 기쁨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음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으로부터 새로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에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온 생애 동안 제가 존경하고 따르며 경청해 오던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들 중의 한 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5년간 칠십인 정원회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훌륭한 교사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분, 즉 그가 십대였을 때 자신의 간증을 굳건히 하기 위한 응답을 얻기 위해 바라보았던 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모든 전환점에서, 그리고 모든 필요사항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해 왔으며,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주

1. “Judge John J. Sirica: Standing Firm for the Primacy of Law,” Time, 1974년 1월 7일자; www.time.com/time/magazine에서 구할 수 있음

맞은편 페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국 연방 법원 판사인 존 제이 시리카와 함께 한 크리스토퍼슨 장로 내외,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위터게이트 재판 과정에서 시리카 판사의 법률 서기로 일했다; 자녀 및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한 크리스토퍼슨 장로 가족; 크리스토퍼슨 장로 내외와 그들의 아들인 라이언과 마이클, 1994년 멕시코에서;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998년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일 당시; 복음 전파를 위해 일본을 헌납한 장소에서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와 그의 아내인 토시코 자매와 함께한 크리스토퍼슨 장로 내외.

빵과 물 이상의 것

라이언 카
교회 잡지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할 기회를 갖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주 취하다 보니 당연시하기가 쉽다. 어떻게 하면 신성한 의식들에 대해 더욱 감사할 수 있을까? 몬태나 보즈맨 스테이크 벨그레이드 2와드의 청남들이 몇 가지 제언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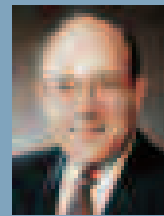
브렉 헬그렌과 제이크 헬그렌, 그리고 마이클 롬펠과 에번 롬펠은 구주를 기억하고 그들의 속죄가 그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바란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준다. 그것은 구주를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청남들이 성찬 집행을 도울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들의 신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성찬에 대해 경건하게 느낌

이 청남들은 또한 성찬이 와드 회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권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와드를 위해 성찬을 나눌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열여섯 살인 제이크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열여덟 살인 그의 형 브렉은 이렇게 말한다. “제사로서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속죄에 대해 생각하려고도 노력하지요. 매주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개선할 점에 대해 노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집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고무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성찬식에서
영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는가?



속죄의 상징물

“아론 신권 소유자가 성찬을 전달할 때, 그는 단지 성찬을 전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원들의 삶 속에 거룩한

속죄의 상징물을 들여오고 그들을 고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키스 비 맥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신권의 기적”,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28쪽.

기회입니다.”

열일곱 살의 마이클 또한 구주에 대해 생각한다. “제 간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생각하고, 제가 회개한다면 그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그 실수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속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합당함

그들은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것이 중요함을 안다. 브렉은 신권을 소유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한다. “저는 그것을 훌륭한 기회로 봅니다. 한 주 내내 자신의 행동에 주의하게 되니까요. 신권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열다섯 살인 에번은 말한다. “신권을 가졌음을 아는 것은 합당한 상태로 성찬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제가 옳은 일을 선택하게 도와줍니다.”

경건을 배움

이 청년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 성찬에 대한 경건을 배웠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에게 성찬이 전달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그 느낌은 그들의 십대 시절까지 이어졌다. 마이클은 말한다. “저는 성찬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지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그분의 복음을 선언하고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찬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 줍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형들을 비롯한 다른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 의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으로써 경건을 배웠다. 예를 들어 에번은 현재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그의 형이 그에게 성찬, 신권, 또 그 밖의 복음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브렉의 형들 또한 그에게 훌륭한 모범이었다. “형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저는 항상 형들을 우러러봤어요.”라고 브렉은 말한다.





헬그렌(맨 위) 형제들과
롬렐 형제들이 성찬을 돕고
있다. 그들은 구주에 대한
간증으로 인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마이클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한다.
“어머니는 성찬이 우리가 교회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속죄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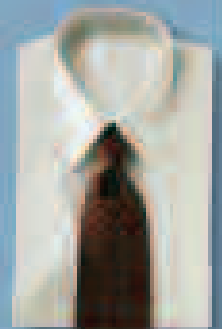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봉사의 행위였다. 좀 더 작은 단위에서 볼
때,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경건을 나타내며 성찬을 취하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와드나 지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 ■

복장은 경건을 나타낼 수 있음

이 청년들은 왜 흰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의 성찬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웃차림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줍니다. 단정하지 못한 차림을 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라고 에번
롬렐은 말한다.

그들은 와드 회원들이
성찬을 취하면서 구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단정한
복장을 하기를 원한다.

제이크 헬그렌은 말한다. “모임에 참석한 회중이
집사와 제사들을 볼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셔츠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더럽다면 성찬의 영을 느끼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은 성찬에 대한 존중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잔치



(요한복음 4:14, 6:35 참조)

정숙함 :

주님에 대한 경건



로버트 디 헤일즈
십이사도 정원회

총 관리 직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세상이 점점 무관심해지며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며, 특히 사람들의 복장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일부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격식 없는 태도의 원인 중 하나는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부족 또는 올바른 모범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는 옷차림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두세 세대가 지났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 적절하고 정숙한 복장에 대한 부모의 좋은 모범을 보고 자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중 문화도 좋은 모범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격식에서 멀어지는 옷차림은 오늘날 정숙한 옷을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경건,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 특히 정숙함과 적절한 복장에 관련된 성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숙함의 원리

일부 후기 성도는 정숙함이 교회의 전통 중 하나이며, 보수적이고 엄격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숙함은 문화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정숙함은 모든 문화와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

원리입니다. 실제로 정숙함은 영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정숙하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며, 겸손할 때 우리는 성신을 우리와 함께하도록 불러옵니다.

물론 정숙함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세기 3:21; 또한 모세서 4:27 참조)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그러므로 신성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우리의 육신은 우리 영의 성전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영혼들을 지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매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은사로서 인식하고, 육신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사명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복장으로써 육신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짧은 반바지, 미니 스커트, 몸에 꼭 끼는 옷, 배를 노출시키는 셔츠,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등과 같은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한 남녀는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가슴이나 등이 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심하게 노출된 옷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용모가 우리의 내적 영성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숙한 복장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나타내게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꼭 끼는 바지나 셔츠, 지나치게 헐렁한 옷, 구겨진 옷, 그리고 단정치 못한 머리는 부적절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장이나 머리 모양, 그리고 외모와 관련된 다른 면에서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깔끔하고 청결해야 하며, 또한 단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의 없는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¹

정숙함은 생각과 행동 모두에 있어 순수함과 순결함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숙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정을 인도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 지상 생활과 그 후 다가올 영원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반영합니다.

교회 모임에서의 정숙한 복장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장은 그분들에 대한 경건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며 영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어떠한 복장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외모와 행동에서 정숙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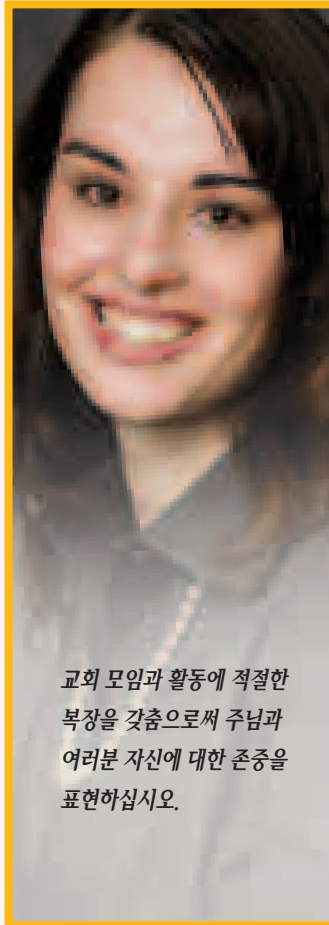
제가 소년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게 교회에 갈 때에는 “일요일 복장”, 즉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잠시 멈추거나 가족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일요일이든 주중이든, 교회 모임과 활동에 적절한 복장을

갖춤으로써 주님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십시오.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전 참석을 위한 정숙한 복장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성전에 다가가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고무 슬리퍼, 청바지, 티셔츠를 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갈 때 어떤 종류든 캐주얼한 복장을 하는 것이



교회 모임과 활동에 적절한 복장을 갖추으로써 주님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십시오.



적절할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가고 있다면, 일요일 복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번 성전에 갈 때, 잠시 멈춰 서서 성전 뜰을 보십시오. 왜 성전이 그토록 아름다운 초목과 연못, 또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그 외관과 느낌을 통해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스러운 의식들을 위해 방문자를 준비시켜 줍니다. 성전이 대도시의 중심부에 있다고 해도 그 외관은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구별됩니다.

우리의 복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복장은 우리의 육신을 성전으로서 나타내 보이기

위한 “조경”입니다. 성전 뜰이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의 신성함과 그에 대한 경건을 나타내듯, 우리의 복장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복장은 우리가 성전 의식과 영원한 성약에 대해 적합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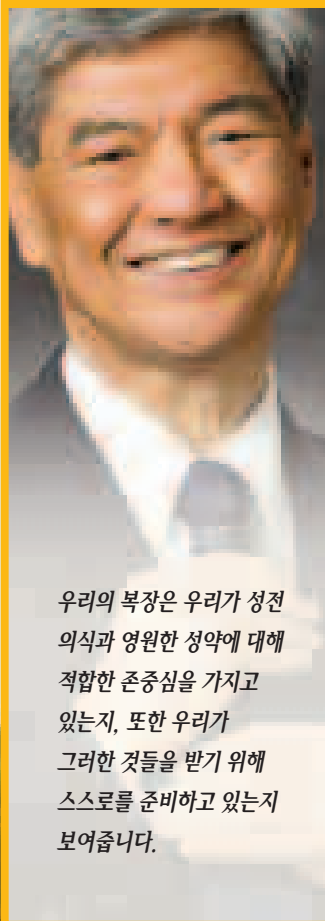
고전동화에서 신데렐라는 왕실의 무도회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구두마저도 그날 저녁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일할 때 입을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부적절하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무도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두들 그 시간을 위해 고상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성스러운 행사 중 하나일 것이며, 그것을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성스러운 건물인 거룩한 성전에서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멋지게 될 성약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장에 그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신부들은 성전 가먼트를 입기에 적절한 윗부분과 소매가 달린 흰색 성전 드레스를 고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봉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받은 엔다우먼트 의식과 그 때에 맺은 성약으로 인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랑들은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구겨진 셔츠나 헐렁한 바지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성약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놓인 제단에 경건히 무릎 꿇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신데렐라의 요정 대모가 신데렐라가 준비를 하도록 도와준 것과 같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준비를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멋지게 될 성약의 중요성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우십시오. 침례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성약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복장은 우리가 성전 의식과 영원한 성약에 대해 적합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음악을 듣는지,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는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모는 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든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서든,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든, 성전에 참석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 계시다면 나는 어떠한 옷차림을 하겠는가? 나는 그분에게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겠는가?” 물론 답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모습을 하고 또한 가장 훌륭한 느낌을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일요일에 여러분 지역의 집회소에서 교회에 참석할 때에도 같은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성찬을 취함으로써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헌납된 주님의 집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용모-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

여러분이 연극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배우가 광대 분장으로 무대에 올라와서는 진지한 주인공의 역할을 연기한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분장이나 배역에 뭔가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내적인 참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복장으로 세상에 나가거나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용모와 행동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까? 교회나 성전에 갈 때,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영이 늘 함께하도록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년 전, 아버지이자 교회의 감독이었던 저는 정숙하고 보수적인 옷차림과 전통에 도전하기 위해 난잡한 색과 자극적인 패션을 고수했던 젊은이들의 이론적인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상한 복장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라는 것보다 또래 그룹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순종과 순응이 요구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길을 끌기 위한 복장을 할 때 우리는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한 옷차림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나아가,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치마와 블라우스, 또는 양복에 흰 셔츠와 타이를 갖추는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흐트러진 머리를 하거나 청바지, 고무 슬리퍼, 상스러운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자란 말입니까?”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선교사와 함께 인생의 목적이나 복음의 회복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늘 선교사들과 같은 복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캐주얼한 복장이 적절한 때도 분명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장을 하느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진정 어디에 거하고 싶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내면의 느낌은 외면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 언어, 복장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부적절한 주의를 끌지 않는

우 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모는 이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장을 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진정 어디에 거하고
싶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말과 옷차림과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과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언어와 복장, 행동이
자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캐주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복장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
사랑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전신 갑주”를 입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용모가 우리의 내적 영성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숙한 복장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중심을 나타냅니다.

미술가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제가 소년이었을 때 제가 이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갑주를
입은 한 기사를 그리시고는
경전에 묘사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중요한 요소들을
표시하셨습니다.(에베소서
6:11~17; 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그
그림은 제 침실에 걸렸으며 우리가 복음 원리에
참되고 충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억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숙한 복장과
정숙한 행동, 즉 자비와 친절,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입히는 것은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골로새서 3:12,
14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성도들이 되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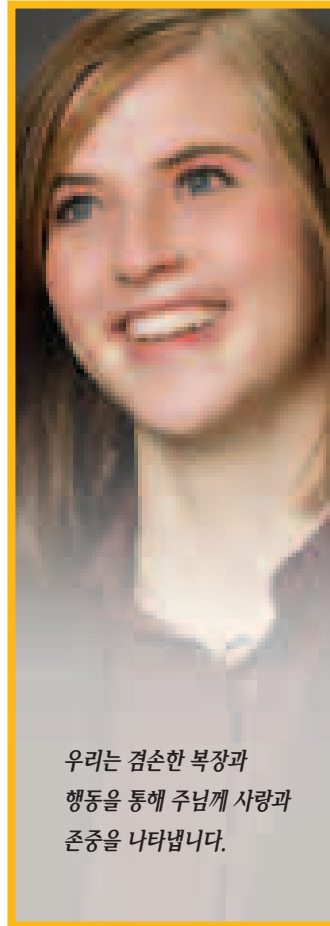
결심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더 편하게
느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복장을 하느냐는 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성약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숙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인도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복장은 우리의 친구와
동료가 누구인지도 결정지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과 영원에서의 행복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고 교회에 참석하고 성전을
방문할 때, 그리고 일상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복장과 행동이
정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부모,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건을
나타내고, 성신이 늘 우리와 함께하도록 할
것입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2001년), “복장과
외모 참조.



우리는 겸손한 복장과
행동을 통해 주님께 사랑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이성, 지성, 그리고 생각을 보호해 줍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 주며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도록 도와줍니다.

“진리[의] 허리 띠”는 우리에게 신앙을 쌓고 간증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악을 극복하게 하여 인생 여정을 인도할 빛과 진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 줍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경전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의식, 계명, 그리고 성약에 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사망 때에 주는

위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그의 생애 동안 부친과 여섯 명의 자녀, 그리고 세 명의 형제를 포함하여 많은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후의 생활에 관해 그가 받은 많은 계시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이 주제에 관해 그가 가르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사망은 일시적인 분리임

“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잃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는 단지 잠시 동안 육신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던 그들의 영은 잠시 동안 육신을 떠나 있게 되며, 우리가 지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는 저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모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망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명상하면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 유아와 무죄한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는가 ...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악한 사람들의 질서와 현세의 악과 슬픔을 피할 수 있도록 데려가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으며, 우리도 곧 다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애통하는 대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 막 세상을 떠났던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영광, 즉 해의 영광에서 전과 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녀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세상에 살면서 젊은이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잠잠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일임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에서, 174~178쪽.

모든 자매는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딸이며 신성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선택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딸, 즉 신의 천성과 영원한 운명을 지닌 ‘고귀한 부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서 하늘 부모로부터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을 ‘증명’ 하기 위해

지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은 약속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만약 주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그분은 이름과 명예와 칭송에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6~107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1920~2007년),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은 여러분에게 자기 가치에 대한 위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위안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과 평정으로 비탄과 도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의 의미,”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23쪽)

로렌조 스노우 회장(1814~1901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것과, 비록 지금은 계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영체에는 아버지께서 지니신 것과 똑같은 능력, 권능 및 기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받은 여러 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특정한 과정 또는 시련을 통과할 때 계발되고 진보하게 됩니다.”(“설교,” *데저렛 뉴스*, 1872년 1월 24일, 597쪽)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이해하고 달성할 수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년):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영원한 본질과 개성의 독특함에 관한 복음 진리를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 대해 갖고 계신 완전한 사랑을 더욱 느끼고 또 그분이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치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진리들을 특히(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의 정적 속에서 찾아 오는) 의심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2006년], 222쪽)

로마서 8:16~17: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각자 스스로 창조자, 즉 하나님을 믿는 개인적인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믿는 신앙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가족을 이루고 인봉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신성한 운명, 즉 영광, 불멸, 그리고 영생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창조,”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4~105쪽) ■

“제게는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 든 새로운 회원은 교회에서 친구, 교회 임무 지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모로나이서 6:4) 양육될 필요가 있습니다.¹ 친구가 최근에 개종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도움을 주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몬경에 보면, 누군가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감동적인 기사 중에 하나는 기도로 인해 일어났습니다.(모사이아서 27:14 참조)

여러분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모사이아서 2:41 참조)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시며 우리 각자가 준비되었을 때 그분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은 가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움으로써 여러분은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고,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주
1. 고든 비 헝클러,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 *리야흐나*, 2006년 10월호, 4쪽, 참조.



복음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제 친구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한 친구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그녀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교회의 몇몇 소녀들과 함께 그녀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일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뒤, 우리는 교회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머지를 채워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을 여는 일입니다.(교리와 성약 28:16 참조)

레베카 티, 16세, 미국 워싱턴 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 활동에 초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복음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릴루 피, 17세, 멕시코 누에보 레온

이곳에 실린 대답들은 도움을 주고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함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을 나누십시오.

먼저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저녁 식사, 가정의 밤, 그리고 다른 교회 활동에 초대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몇몇 경전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교회에 초대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과 교회만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율리암 브이, 20세, 통가 톱가타푸



그들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친구를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교회에서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지도 알게 해 주세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들이 사랑 받고 환영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세요.

매디슨 비, 14세, 미국 애리조나 주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친구를 위해 곁에 있어 주고, 모범이 되어 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알고 사랑하시며 그들이

원한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나 케이, 19세, 독일 로어 색소니

그들이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동기가 되었던 간증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신앙에 따라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기도의 힘과 신권의 권능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애나 알, 21세, 우크라이나 도넛스크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저는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와드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최근, 저활동된 제 친구 한 명이 다시 장미반 활동에 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데날리 엘, 15세, 미국 알래스카 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하고 강력한 믿음 아래, 우리가 할 일은 구속 사업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자신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회원들의 시야를 높여 주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1910~2008년),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5쪽

다음 호 질문

“제 친구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담배를 끊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2008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Liahona, Questions & Answers 9/08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드(혹은 지부)

스테이크(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을 인쇄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명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가족의 신앙

김벌리 리드
교회 집지

오 늘날에도 수 세기나 된 성당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높은 건물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고대의 유적들이 과거 사회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한편, 중세의 건물들은 굽은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다. 건축법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토스카나 지방의 전원 풍경은 과도한 개발을 금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들은 만약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했던 미켈란젤로가 오늘날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면, 그가 쉽게 고향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건축물과 주변 경관을 보존하는 일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있다. 그들은

대대로 신앙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계 곳곳의 많은 교회 회원들처럼, 이탈리아의 후기 성도들은 복음 성약을 맺은 다세대 가족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 개척자들이다. 이 교회 회원들은 주변 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옛 전통과 세속주의에 직면해 있지만, 구주께 초점을 맞추고 후손의 마음에서 번성할 신앙을 키우고자 노력한다.

가족을 존중함

가족의 신앙을 키우는 첫 번째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가족을 **가지려**는 용기이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부 피렌체 2 지부의 마르코와 라파엘라 페리니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데이트를 했다. 그들은 귀환 후 곧 성전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30대에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지요.”라고 마르코는 말한다. 어떤 친구와 친척들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일찍 결혼하느냐?”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그들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 준 것이 마르코의 부모인 애나와 브루노의 영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만일 복음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그들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나 페리니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니다. 서로에게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러한 것을 원했습니다.”

라파엘라 또한 성전 결혼을 원했다. 그녀는 비교적 교회

맞은 편 페이지: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줄리아, 마르코, 라파엘라, 로렌조, 알레시오, 애나, 브루노 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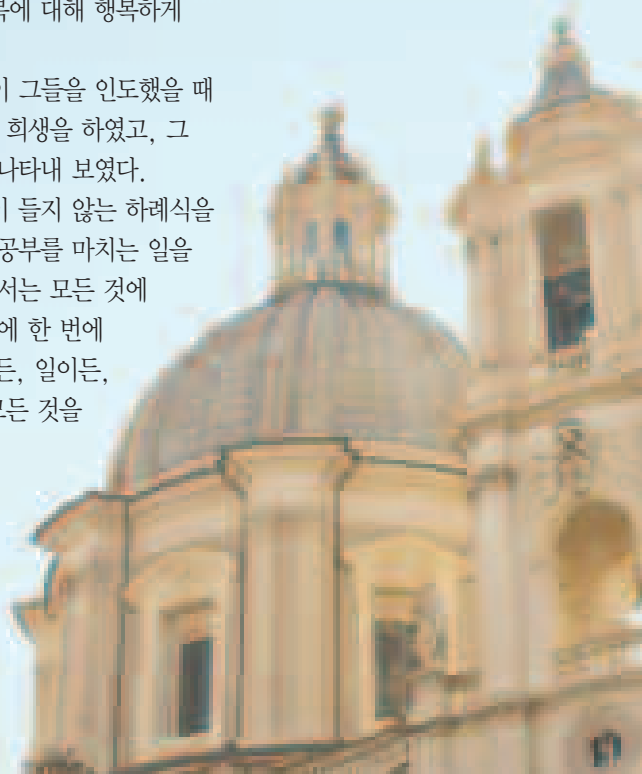
애나가 1968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에는 교회 회원이 거의 없었다. 자신이 내릴 결정에 대해 기도해 본 후, 그녀는 그녀의 믿음을 존중해 주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동의해 준 브루노와 결혼했다. “저는 물몬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결코 걱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저와 애나는 서로를 아주 존중했기 때문이죠.”라고 브루노는 말한다.

비록 애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족의 모든 축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슬펐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두 아들 마르코와 알레시오에게 구주를 그들의 삶에 중심으로 두고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쳤다.

결국 남편 브루노는 교회에 들어왔다. 그는 현재 피렌체 2지부의 회장이다. 그러나 그가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지난 29년 동안, 그와 애나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관계는 자녀와 며느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라파엘라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그 가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들이 훌륭한 가정 생활을 하고

회원이 적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는 더 힘들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은 훌륭한 목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마음에 선한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부모의 세대보다 현재 후기 성도들을 만나기가 더 쉬워진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녀는 또한 주님이 그녀가 “단지 교회 회원이 아니라 합당한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도록 기회를 주신 축복에 대해 행복하게 생각한다.

라파엘라와 마르코는 영이 그들을 인도했을 때 바로 결혼할 수 있도록 작은 희생을 하였고, 그 희생을 통해 주님께 감사를 나타내 보였다. 그들은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하례식을 계획했으며, 마르코는 대학 공부를 마치는 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는 모든 것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 이상 하는 것, 즉 공부든, 일이든, 혹은 가정을 갖는 것이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재정적인 염려는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소망은 가정을 갖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마르코는 말한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직장, 살 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신앙이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아주 좋은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라고 마르코는 말한다. “언제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을 때 필요한 축복은 올 것이다. 결국 그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배운 외국어 덕분에 여행업계에서 보수가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는 또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 그의 가족은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르코는 교육을 받으라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조금 더 크면 학위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영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두 자녀 줄리아와 로렌조가 태어난 이래로 조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라고 라파엘라는 말한다. 그들은 행복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그 진리를 가족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목적에서 하나가 됨

이탈리아 로마 스테이크의 피에로 소나글리아는 영적인 단합이 단단한 가족의 신앙을 쌓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가족에게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나아가는” 것일 때 더욱 특별한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피에로가 항상 그러한 우선 순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5세에 교회를 떠났고, 그가 아버지가 되고 그의 부친에게 치명적인 심장 마비가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가 어렸을 때 배운 복음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했다. “저는 제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제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그러한 중요하고 과감한 변화”가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일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이 단합되기를 원했다.

피에로의 아내인 칼라는 피에로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자랐으며 어렸을 때 일반 교회에 매주 참석했었다. “하지만 저는 더 혼란스런 생각에 잠겨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녀의 인생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상의 문제였다. 칼라에게는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그녀는 쓰여 있는 기도를 읽는 대신 “제 언어를 사용하여 제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한다. 신앙심이 깊고 진심어린 그녀와 주님과과의 관계는 피에로가 재활동되기 시작했을 때 그녀로 하여금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했다.

이제 신앙 안에서 단합된 부모로서, 피에로와 칼라는 아들인 일라리오와 마티아가 아직 어린 지금부터 유혹에 맞서도록 준비시키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매일 저녁 경전을 읽고 또한 매주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고,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갑니다.”라고 칼라는 말한다. 가장 가까운 성전이 스위스와 스페인에 있는 상황에서 피에로와 칼라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라고 피에로는 덧붙인다. 피에로는 이것이 아이들이 십대를 거쳐, 그리고 그 후에도 충실하게 교회에 남아 있는 데 필요한 힘과

간증으로 무장시켜 주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으며, 그의 자녀들도 그러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피에로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로마 스테이크의 안드레아 론디넬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 즉 부친의 사망 이후에 복음을 알게 되었다. “저는 삶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반드시 무덤 저편에 삶이 있으며, 삶과 죽음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15년 전 누이들이 침례를 받던 때에 교회를 알게 되었다. 부친이 사망한 후 그는 선교사들을 찾았으며 15일 후에 침례를 받았다.

얼마 후 그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문에서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셨다. 그는 “그녀를 찾는 동안 저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영적인 공동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아내를 원했다. 한 번은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성전에서 인봉 받는

맞은 편 페이지: 안드레아 론디넬리는 영원한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의 아내 마리엘라와 그들의 자녀인 다니엘레, 발렌티나는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위: 아들인 일라리오와 마티아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피에로와 칼라 소나글리아.



로렌조와 일라리아
 마리아니는 그들의
 자녀인 지오엘레와
 다비데에게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다.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파혼한 적도 있다. “저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안드레아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안드레아는 언젠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느낌은 그가 마리엘라를 만날 때까지 인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마리엘라는 열한 살이었을 때 콜롬비아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모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녀는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그녀는 영이 그곳에 영구적으로 머물라고 속삭이는 것을 느꼈을 때 놀란 한편 약간은 낙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에서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직장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 이곳에 있으며 제가 다할 임무가 이곳에 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안드레아는 그 속삭임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안드레아와 마리엘라는 그가 침례를 받고 2년이 지난 후 만났으며, 현재 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결혼, 즉 성전에서 인봉 받고, 신앙 안에서 함께 노력하는 결혼을 할 수 있었음에 기뻐한다. 그들은 “산책하는 것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계속해서 단합을 키운다.

가정의 밤 또한 중요한 몫을 한다. “우리 아들의 침례에는 온 가족이 참여했습니다.”라고 안드레아는 말한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가정의 밤을 하면서 침례와 확인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들 다니엘레가 받아들일 원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참여했으며, 그 순간을 위해 많은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정의 밤을 가질 때마다 자녀들이 참여했다. “우리의 딸인 발렌티나는 음악을 지휘합니다. 아주 잘 하지요.”라고 안드레아는 웃으면서

말한다. 다니엘레는 찬송가를 선택하고, 때때로 공과 준비를 돕는다. “매주 월요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멋진 경험이 됩니다.”라고 안드레아는 말한다. 그러한 경험은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쌓게 될 영적인 기초를 강화한다.

기쁨으로 생활함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부 피사 지부의 로렌조 마리아니는 가족의 신앙을 키우는 세 번째 요소가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로렌조는 지방부 회장단 보좌이며, 그의 아내 일라리아는 가정에 머물면서 청년에서 봉사하는 주부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들을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행복이 자녀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훌륭한 모범을 보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느낄 수 있거든요.”라고 로렌조는 말한다.

“저는 어떻게 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키워 줄 지 매일 깊이 생각합니다.”라고 일라리아는 말한다. 그녀는 지속적이고 사랑에 찬 보살핌이 아들인

지오엘레와 다비테에게 가족의 기쁨, 그리고 가족 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이탈리아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세력에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녀를 한 명만 가지고 그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녀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이다.

일라리아는 때로 많은 여인들이 직장에서 어울려 지내는 것을 볼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녀는 영이 자신에게 행복과 힘을 채워 주실 것을 기도한다. “저는 또한 교회에서 저를 사랑하는 많은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때로 도움을 위해 기도할 때면, 지부에 있는 한 자매가 전화를 해서 도움을 준다.

확대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으로서, 일라리아와 로렌조는 그들의 후손들이 우러러보고 닮고 싶어하는 여러 세대의 충실한 선조들을 갖게 될 그날을 고대한다. “우리는 후손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로렌조는 말한다. 2대째 교회 회원으로서, 그는 “강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로렌조와 일라리아는 개척자가 된 특권, 즉 복음의 빛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족으로서 최초의 몇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남다른 감사를 느낀다. 로렌조의 어머니는 가족 중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왔으며, 일라리아는 고모로부터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로렌조는 “복음은 우리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영원한 안목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보다는 영원한 관점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충실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튼튼한 연결 고리의 요건이 된다.

“때때로 연차 대회에서 연사의 조상들이 개척자로서 평원을 횡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약간의 질투심을 느낍니다.”라고 일라리아는 시인한다.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완전한 가계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녀와 로렌조는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보았던 교회의 발전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그들은 그곳에 씨앗을 뿌린 최초의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 풍성한 수확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일라리아는 그날을 상상하며 미소를 짓는다. “저는 언젠가 증조모인 일라리아의 일지를 누군가가 읽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신앙에 관한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 그녀로부터 시작된다.

후손을 위해 준비함

이탈리아 국민들이 고대 기념비와 르네상스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려는 반면, 이탈리아 후기 성도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같은 것을 가르침으로써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가족의 역사를 창조한다. 그들은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견디고, 근면하고, 행복하고, 성전 성약 안에서 단합된 충실한 가족을 만드는 일이 가능한 일임을 입증한다. 말씀과 모범으로써 그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친다. ■

영원한 가족을

벤자민 디 호요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 아버지는 경전을 가르치는 데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학습시간이 아버지를 교사로 둔 저만의 세미나리 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멕 시코에서 자라면서, 저는 훌륭한 후기성도 가정에 속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겨울철에 대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계피와 밀가루로 만든 또띠야 냄새를 맡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복음과 간증은 풍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지니신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사랑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몰몬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그 책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그 책의 교리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1917년에 개종했고 당시 여섯 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 시절 목장에서 동물들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방에 항상 몰몬경 한 권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가족과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6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계속하여 교회에서 봉사하심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1940년대에 선교사로 봉사하셨으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선교부 한 개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제가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는 건설현장의

트럭운전사로 매우 힘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제 다섯 명의 누이들에게 “벤자민은 어디 있니?” 하고 묻곤 하셨습니다.

제 누이들은 저에게 와서 “아버지가 널 찾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무엇이 필요하세요?”라고 여쭙곤 했습니다.

그분은 “네 경전을 가지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은 경전을 가르치는 데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멕시코에는 세미나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학습시간이 아버지를 교사로 둔 저만의 세미나리 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을 읽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영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전을 설명하시는 동안 매우 강한 영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대한 제 간증은 아버지와와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가 참되다고는 생각했지만,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것을 쇠막대에 가져다

세움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빠르게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어떤 친구들을 갖고 싶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놓으셨습니다. 저를 보살피신 그분의 방법은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과 내적 확신의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로부터 경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저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시간에 그분은 저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보호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그분이 저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신중하게 친구들을 선택함

제가 16살이었을 때, 학교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비회원이었지만, 그들은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제가 하지 않으려 했던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사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방식들은 매우 달랐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친구들이 너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그분은 저에게 신중할 것과

친구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 바빠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어느 날, 그들은 나쁜 짓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타고 있던 차를 정말 빠르게 몰았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어떤 친구들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호향상모임에 참석한 것은 저에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원하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개인적으로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종종 그분보다는 친구들이 우리의 주의를 더 끌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기꺼이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찬을 전달하는 특권

저는 특별히 청소년으로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와드에는 단지 몇 명의 청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성찬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교사로 봉사하는 동안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빵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리컵을 사용했는데, 저는 그것들을 하나 하나 씻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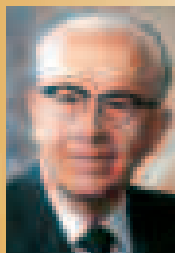
성찬을 전달할 때, 저는 사람들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아이들- 모든 사람들은 빵과 물을 취할 때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찬식에서의 경험들을 저는 살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주 저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합당하다면,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간증으로부터 오는 위안

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가족들과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속죄와 부활로 인해, 우리 둘 모두 큰 내적 안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적에 대해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단지 머리로는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았습니다. 영은 저에게 물론경이 참되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또한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제가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1899~1994),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101쪽.

그들은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 높은 이상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 줄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지금까지의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

큰 시험을 준비하면서, 안드레아는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칠

레 산티아고에서 성장하고 있는 십대 소녀인 안드레아 곤잘레스는 필요할 경우 그녀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 줄, 대학교 학위에 대한 꿈을 제외하고는 무언가를 풍성하게 가져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에 즈음하여 대입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과연 그러한 일 중 하나라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제 모든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쉽지 않은 목표들

안드레아는 경쟁이 치열하고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상위 대학들은 대입 시험의 수학 과목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사립 학교에 다닐 만큼 여유가 있는 집의 학생들이 그런 점수를 얻는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안드레아는 힘든 일정으로 마지막 학년을 보냈다. 일찍 일어났고, 학교를 마친 후 늦게까지 공부했으며, 쉬는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네 번 밤에 시간을 내어 세미나리 과정을 수강하였다.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난 공부해야 해’ 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똑똑한 척한다고 놀림을 얼마나 자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한 미래를 원한다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험을 통과함

그녀의 희생은 보상을 받았다. 대학 입학 시험의 수학 과목에서 안드레아는 850점 만점을 받은 전국 200명의 학생들 중 하나였고 공립학교에서 그 점수를 받은 여학생은 그녀를 포함하여 두 명이었다.

그녀는 또한 세미나리를 졸업하였고,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항상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 주었기 때문에 반원들로부터 올해의 “가장 좋은 친구”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안드레아는 자신의 성공이 스스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와 더 밀접한 관계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축복은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온다는 것이다. (니파이후서 9:28~29 참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똑똑한 것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준비하면서 배운 그러한 원리들은 안드레아가 치르고 있던 다른 시험 즉,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했다.

주님은 경전에서 이 시험에 대해 설명하신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그녀가 유지해야 했던 힘겨웠던 일정들과 때때로 견뎌내야만 했던 놀림들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단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야 하는 것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¹

그분에게 너무 큰 시험이란 없다

그녀는 종종 두 가지 시험에 부딪힌다. 그러한 경우,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것이 두 시험 모두를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안드레아는 배웠다.

여러 번 그녀는 교회 활동과 학교 활동, 복음 공부와 시험 공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교회의 것을 우선으로 택했을 때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배웠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의 첫 번째 관심이 그분일 때, 그녀의 다른 걱정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간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경험들은 안드레아에게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분은 제게 주신 시험들을 제가 잘 견디도록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영웅 중 하나인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니파이전서 3:7)

안드레아는 비록 그녀가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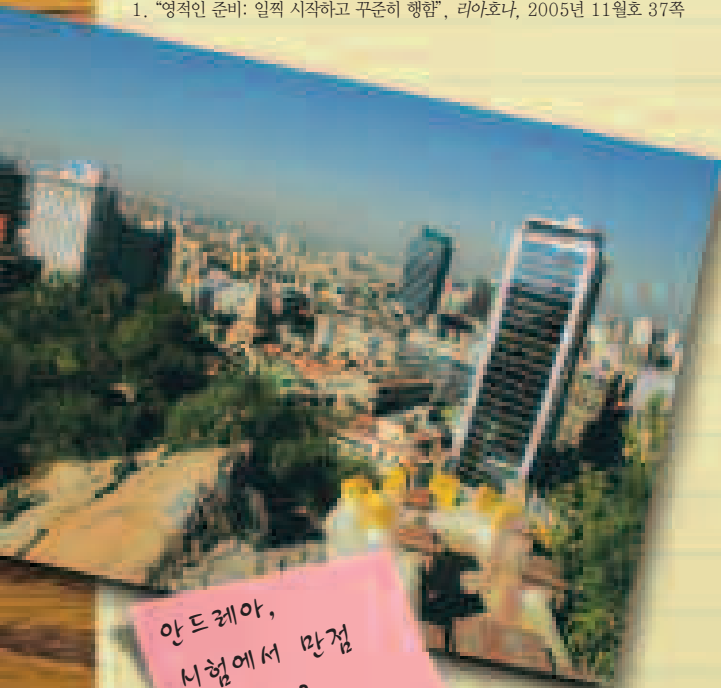
사진, 아담 시 울스, 포사된 것은 제비, 배경: 프레디그 데이먼드

다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위해 그녀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우선에 둔다면, 그분은 그 시험 역시 통과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 ■

주

1.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안드레아,
시험에서 만점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교과서

안드레아가 큰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것은 수학과 과학 교과서만이 아니었다.

"경전은 주님의 교과서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낙담했을 때, 그녀는 교과서들을 보지 않았다. "저는 제 영을 고무시키기 위해 주님의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낙담할 때, 경전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특별히 몰몬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범이 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니파이가, 하나님이 그의 시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리라고 신뢰했던 것은 안드레아가 그녀의 시험을 대처하는 데 있어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니파이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니파이전서 1:20)

니파이가 보여준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모범에 대해 배우기 위해, 다음 구절들을 읽는다. 니파이전서 3:7, 4:1, 7:12, 9:6, 17:3, 50; 니파이후서 4:19, 34.

경전 공부를 계속함

교회 전역의 회원들이 확인해 주듯이, 경전을 공부하는 데에는 여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18 30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고 말씀하셨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은 이 평화와 인도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게 될 때, 그리고 신성한 귀가 듣지 않고 있고 신성한 음성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제가 하나님에게서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신을 경전에 몰입시킬 때, 그 거리가 좁아지고 영성이 돌아옵니다.”¹

여기에서는 스스로를 경전에 몰입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회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나눈다.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한다

저는 매년 각기 다른 주제들과 가르침들을 찾으면서 몰몬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제가 니파이전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리하이에 대해 여섯 가지 분야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 개인적인 성품,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와의 관계, 그가 계시 받은 방법들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인 니파이와 야곱에 대해 똑같은 것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가진 유사한 자질들을 찾아내고, 또한 각 선지자들의 주요한 가르침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톰 윌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하이에 그의 일행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함. 아놀드 프리버그

나 파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니파이후서 4:15)라고 기록했다.

질문을 한다

저는 읽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저는 경전을 이해하고 그것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 생활에서 어떤 것이 이 상황과 비슷한가? 어떤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저자는 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켰는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바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삶에서 힘겹게 여기고 있는 것들 즉, 제가 답을 찾고 있는 상황들 혹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는 가정의 일을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직장을 옮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저는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면서, 단지 몇 구절을 읽는 데 경전을 읽는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안 지 조한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경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본다

표준 경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읽습니다. 저는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유용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소망을 지니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소음과 대화로부터 자유로운 곳을 찾습니다. 저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경전과 관계없는 생각들을 머리 속에서 지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실제 장소들을 상상하고 제가 마치 관찰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저는 주변의 세상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 집중합니다.

주안 데 디오스 산체스, 도미니카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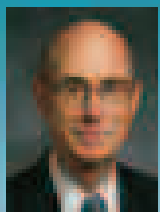
경전일지를 적는다

제가 살면서 경전에 몰입했던 시기들을 돌이켜 봤을 때, 예외 없이 저는 제가 받은 느낌과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경전 구절들을 학습 일지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책과 펜을 찾아 그것들을 제 경전과 함께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읽었던 것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다소 귀찮은 일이었고,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단지 영적인 간식만을 먹고 그 뒤 제 일상 생활을 계속해 가기를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속했을 때, 경전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경전 구절을 분석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구절들이 복잡한 가정 교육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곧 제가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단지 경전만을 읽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과거에 숙고했던 것들을 다시 읽으면서 현재의 질문과 걱정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통찰력을 제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몇 주전에 미리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리카 밀러, 미국, 유타 주

기도로 시작한다

경전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나서야, 저는 경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저의 이해력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신이 제 마음 속에 이야기하도록 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경전을 연구하고 숙고하는 동안 제 영이 성신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질문을 한다

“저는 때로는 교리를 찾아보기 위해 경전을 읽습니다. 때로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 경전을 읽습니다. 저는 질문을 가지고 경전을 읽는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혹은 ‘그분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늘 전에는 결코 가진 적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찾게 되고 제 질문에 대한 영감과 가르침과 답을 얻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 리아호나, 2005년 7월호, 8쪽.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경전에서 여러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 현재 상황과 관련된 특정한 질문에 제 기도를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해력의 축복을 구함으로써, 제 삶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경전을 읽기 전에 부지런히 인도를 구할 때, 저는 경전에서 저에게 비유할 수 있는 상황들을 찾게 됩니다.
(니파이전서 19:23 참조)

제스 러드, 미국 워싱턴 주

구주의 가르침을 찾아본다

칠레 산티아고 서 선교부에서 전임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경전 공부와, 그것을 제 자신과 구도자들에게 더 효과적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한 아름다운 젊은 가족을 가르치는 동안, 저는 그들에게 제3니파이 11장을 읽도록 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읽는 것에 목적을 주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미대륙을 방문하신 구주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간증하는 것 대신, 제 동반자와 저는 그들에게 구주께서 가르치신 것, 특별히 그분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을 찾아보라는 목표를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경전을 읽는 것을 보물찾기에 비유하면서 아이들이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몰몬경에서 숨겨진 진리의 보물을 찾는 것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족이 그들의 결심을 지킬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날 다시 방문했을 때, 그 가족들은 몰몬경을 읽고, 고대 미대륙 주민들에게 주신 구주의 첫 번째 가르침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장 전체에 나오는 거의 모든 그분의 가르침을 요약했습니다. 아이들까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이언 가신, 미국 미네소타 주

연차 대회와 찬송가를 함께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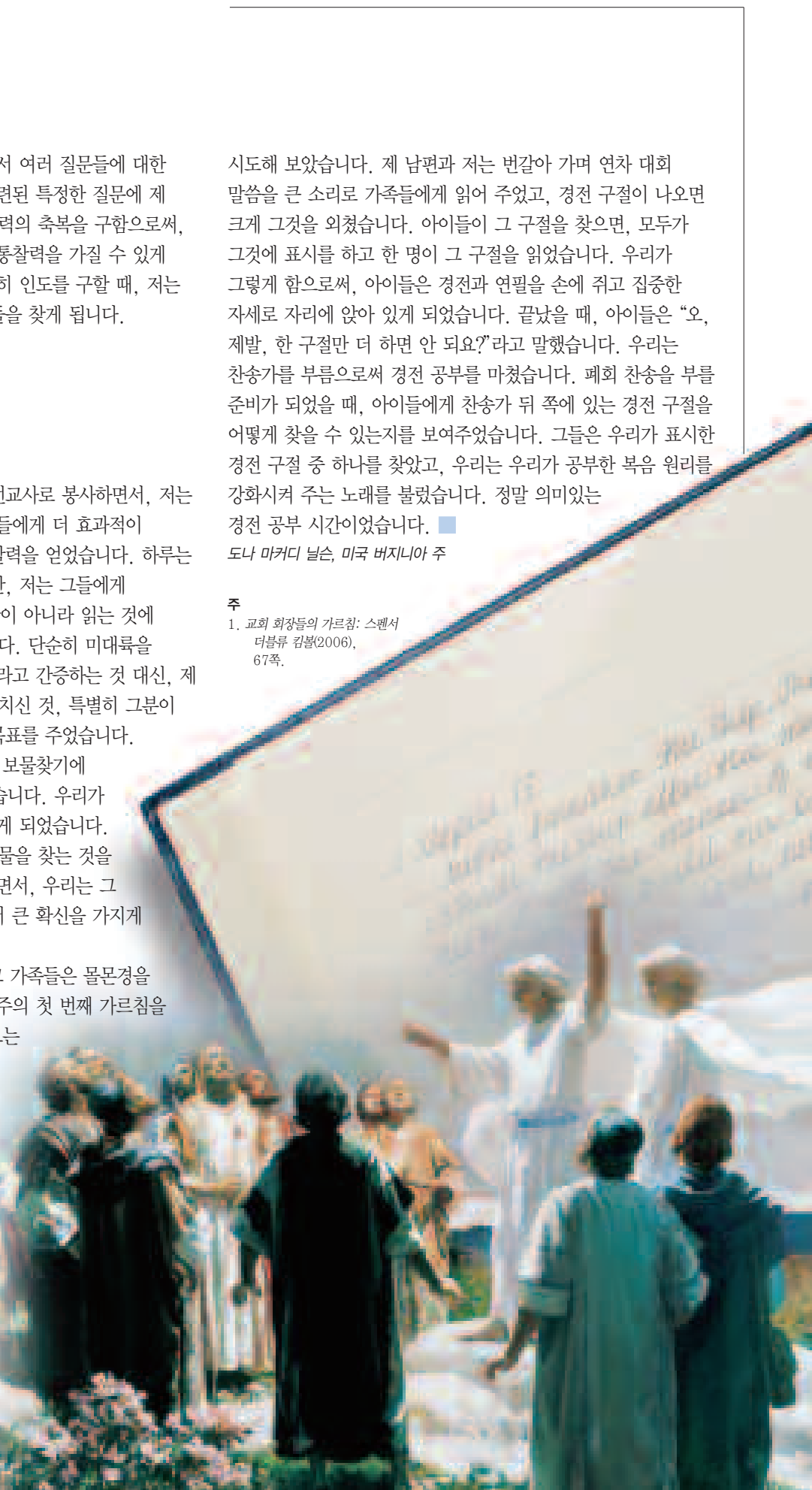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 경전 공부를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번갈아 가며 연차 대회 말씀을 큰 소리로 가족들에게 읽어 주었고, 경전 구절이 나오면 크게 그것을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그 구절을 찾으면, 모두가 그것에 표시를 하고 한 명이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경전과 연필을 손에 쥐고 집중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끝났을 때, 아이들은 “오, 제발, 한 구절만 더 하면 안 되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경전 공부를 마쳤습니다. 폐회 찬송을 부를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찬송가 뒤 쪽에 있는 경전 구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표시한 경전 구절 중 하나를 찾았고, 우리는 우리가 공부한 복음 원리를 강화시켜 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의미있는 경전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

도나 마커디 닐슨, 미국 버지니아 주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펠서 더블류 킴블(2006), 67쪽.





그 소녀의 노랫소리가
성당의 높은
천정으로부터 메아리
치는 동안, 그 찬송가의 위안의
메시지를 이해한 신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성당의 찬송가

콜린 앨런

20 04년 9월, 나는 두 손주인 짐과 아리안과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네덜란드 독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그 기념식에 참가하도록 네덜란드 역사 학회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는 B-24 폭격기의 부조종사였던 나의 형 이반이 1944년

독립 전쟁을 돕다가 전사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형의 비행기가 추락했던 곳에 기념판을 세우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가는 국경 바로 위에 위치한 옴므르섬으로 갔다. 행사 조직위원회의 일원인 제라드 씨링 신부와 내가 기념식에서 말씀을 한 후, 17살의 아리안이 미국 국가인 “별이

빛나는 것발”을 불렀고, 나중에 15살인 짐은 성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도왔다.

그 후에, 나는 씨링 신부에게 우스터하우스에 있는 그의 성당에서 다음 날 열리게 되어 있는 특별 독립기념 미사에 참석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의 관심을 반겼으며 우리를 참석하도록 초청하였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 아리안이 그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던지시 건넸다. 물론 이미 그 아이와 상의한 후였다.

놀라워 하면서 그는 “그 아이가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선하고 친절하신 분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가 독립기념 미사에 도착했을 때, 성당은 가득 차 있었다. 모임 도중에, 씨링 신부는 아리안에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였다. 그녀를 앞으로 데려온 후, 그는 “이제 우리는 유태에서 온 물론

소녀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악보나 반주의 도움도 없이, 아리안은 노래를 시작했다. 그 소녀의 노랫소리가 성당의 높은 천정으로부터 메아리 치는 동안, 그 찬송가의 위안의 메시지를 이해한 신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모임을 마치면서, 많은 회중들이 아리안에게 찬송가를 부른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그 경험은 인종과 종교 또는 언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도록 해 주었다. ■

주
1. 찬송가, 187장.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황금 구도자

페리 더블류 카터

어느 날 아침 내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 이름을 발견했다.

엔리케 조지 다이어스. 메일 제목은 “황금 구도자로부터의 Saludos [인사]”였다.

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고 삭제 버튼을 누를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고 나는 그것을 열어 보았다. 그것은 스페인어로 써 있었다.

메일을 읽는 동안, 나는 엔리케 다이어스라는 사람이 내가 30년 전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던 아르헨티나의 아드로게에 당시 18세의 나이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아침 그가 마을 중심가를 지나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그를 세워 그에게 첫 번째 시현에 관한 소책자를 주었다고 했다. 선교부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나와 동반자는 아드로게의 거리에서 아침에 종종 소책자를 나누어 주곤 하였다. 비록 이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아마도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화는 3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길거리에서 어떤 한 젊은 남자와 잠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기억했다. 그의 이메일을 받기 몇 주 전에, 나는 내 이름을 아르헨티나 선교부 웹 사이트에 올렸고, 거기서 다이어스 형제는 내 이름을 찾은 것이다.

이메일에서 그는 그가 소책자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보여 주었으며, 그녀는 그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해 더 배워 볼

것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몇 달 후 그가 선교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나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 간 상태였다.

엔리케는 토론을 했고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20개월 동안 봉사했지만 그의 침례에 대해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었다.

오래 전 그날 아침 우리가 길거리에서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그의 삶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침례 받은 지 2년 후에 그는 북

아르헨티나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이 후 그는 결혼했고 계속하여 교회에 충실하였으며, 감독 및 두 명의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그리고 고등 평의원을 비롯한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하였다. 그는 첫째 아들이 볼리비아의 라파즈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 이 메일의 내용으로부터 내가 마음에 느낀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선교 사업은

30 년이
란
세월
이 흐른 뒤에,
아르헨티나의 한
거리에서 어떤 한 젊은
남자에게 소책자를 전해
준 사실을 기억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기쁨을 주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엔리케 조지 다이어스로부터 온 이 오래 전 소식은 선교사로서 봉사했던 나의 모든 기억들을 훨씬 더 감미롭게 해주었다. ■

빵과 간증

비다 에이치 리델

어느 금식 주 일요일 상호부조회 시간에, 우리 와드의 한 자매님이 일어나 그녀의 간증을 나누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한 후, 그녀는 다음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는 폐렴을 앓고 있었고 어느 날 아침에 특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식욕이 크게 줄었고, 조금이나마 그녀가 입에 뱉 수 있다고 생각한 음식은 집에서 직접 굽는 빵밖에 없었다. 그녀는 상심하게 되었고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 줄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녀의 방문교사가 집에서 구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녀를 방문했다. 그 자매는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했다. 그분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가 필요했던 바로 그것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바로 그 방문교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아침 기억을 더듬어, 내가 왜 그 시간에 그녀에게 빵을 가져가기로 결정했는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목소리를 듣거나 가슴에 뜨거운 느낌을 받지 않았다. 그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빵을 만들고 싶었다.

빵을 준비하면서, 우리 와드에 있는 아픈 한 자매님이 생각났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가 병을 앓는 동안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게 빵 한 덩어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런데 빵이 모양이 다소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를 맛보았을 때, 괜찮은 것 같았다. “적어도 내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나는 따뜻하고 이상한 모양을 한 빵을 포장하여 그녀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 내가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고 감사하긴 했지만 내가 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 나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내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걱정이 되었다.

수개월 후, 내가 그녀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는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신이 나에게 속삭여 주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영의 속삭임에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커다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무언가 좋은 일을 하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구주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로부터이니, 나에게서가 아니고는 선이 아무에게서도 나지 아니함이니라.”(이디서 4:12)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라도 좋은 일을 하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이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속삭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지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집에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간증을 강화시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상호부조회 시간에 그녀의 경험을 나누라는 속삭임을 들었을 때, 그녀 역시 그것을 통해 내가 영을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소중한 교훈을 배우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

나는 집에서 만든 빵 한 덩어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고 간증을 강화시켜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 알고 있었던 것일까?

저스틴 제라시타노

19 98년의 어느 날 저녁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에게 차를 좀 태워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의 집으로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나는 후기 성도였다. 나는 언제나 신이 있다고 믿어 왔고, 그는 항상 신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전에 결코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했다. 내 친구를 내려주기 직전에,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가 시현을 통해 그들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종종 그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참됨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의 간증을 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 문을 열고 악수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다. “이봐, 좋은 얘기 고마워. 우리 모두 자신이 가진 믿음에 확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것들의 진실함에 대해 영적인 확인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다.

20분을 달려 집에 돌아왔다. 그 20분의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했던 대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내 삶과 내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생각하는 동안 찬송가 “내 구주 살아계시다”가 마음에 떠올랐고 그것은 내 영혼을 꿰뚫었다. 나는 소리 내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구주 살아계시다.
큰 은혜 주는 이 말씀.
한때 죽으시었으나
영원히 사시는 줄세.

내가 노래하는 동안, 영이 그 말씀의 진실함을 증거해 주었고 내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간증은 간증을 전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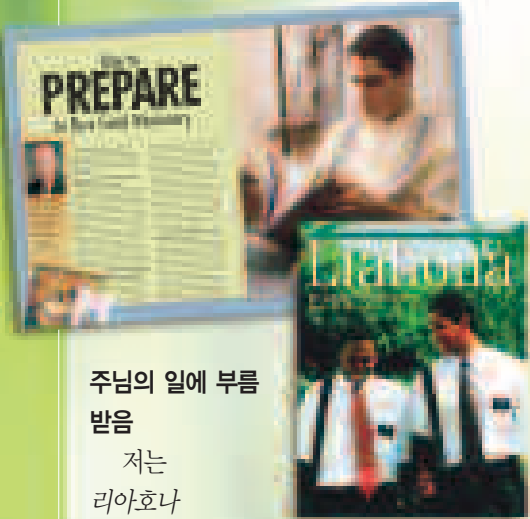
성신이 나의 간증의 진실함을 증거해 준 그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성신이 나의 영혼에 증거해 주었기에,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증거는 내가 얼마 후 전임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기쁘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간증이 되었다.

주

1. 찬송가, 68장.
2.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지식을 위한 탐구”,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18쪽 참조.

그 러한 것들에 대한 내 간증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것들의 진실함에 대해 영적인 확인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다.





주님의 일에 부름 받음

저는 *리아호나* 2007년 3월호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은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돕도록 저를 부르신 때임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합니다.
주비 세빌라 자매, 필리핀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잡지

*리아호나*는 제게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리아호나* 없이 어디를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21년 전 제가 개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며 제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훌륭한 일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베아트리지 슌케, 스위스

결혼을 강화함

저에게 최근에 결혼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결혼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거룩한 책임을 다루고 있는 *리아호나* 잡지를 주었습니다. 비록 제 친구가 교회 회원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잡지를 읽었으며, 제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지가 그녀의 결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아호나*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베아트리스 데 구아이구아, 베네수엘라

진심으로 감사함

저는 우리가 지구의 이 지역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리아호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편집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친구들이 교회에 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기 위해 어느 때에나,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십시오. 저는 복음이 지구의 이 지역에서도 전파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스쿠오 도미니크 에크펠용, 나이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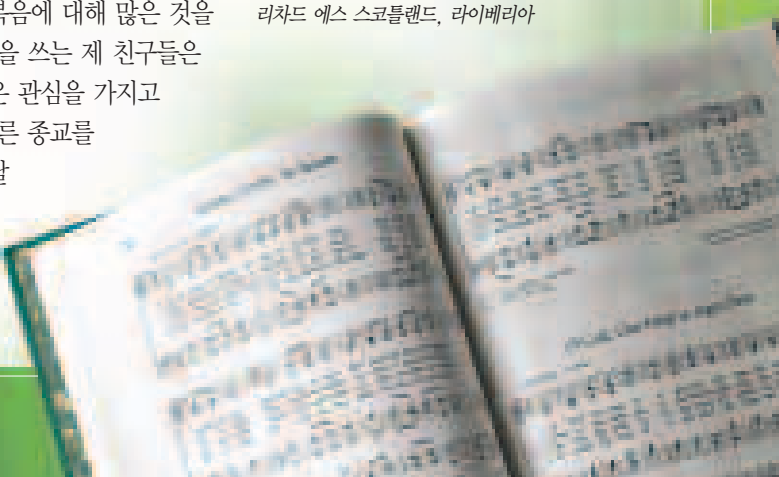
가장 좋은 잡지

저는 새로운 교회 회원이며, *리아호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제 친구들은 *리아호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매일 *리아호나*를 기다립니다. 제

친구들 중 한 명은 이 잡지가 이제까지 자신이 본 최고의 잡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정 도표(*리아호나*, 2007년 9월호, 삽입지,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의 “예산 계획 초안지”)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모두가 삽입조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들은 저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자 살로몬, 인도

찬송가의 감동

저는 *리아호나* 2007년 5월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제이 이 젠슨 장로의 말씀, “영적으로 양육하는 찬송가의 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찬송가의 힘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지방 라디오 쇼를 경청하는 동안 저는 이전에 결코 들어 본 적이 없는 노래 한 곡을 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룹이 노래한 태도와 노래가 지니고 있는 메시지도 즐겼습니다. 후에 저는 이 노래가 후기 성도라고 불리는 단체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전체 가사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첫 일요일, 제가 맨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찬송가 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노래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저는 침례 받았습니다.
리처드 에스 스코틀랜드, 라이베리아



친구들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동기와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의로운 동기가 주는 힘에 대해 유년 시절에 얻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혼란 후에, 제 가족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동독에 정착했습니다. 4학년 때, 저는 학교에서 제1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우야 했습니다. 러시아어는 키릴 문자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11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갑자기 동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당시 미국의 점령지였던 서독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 학교에서는 러시아어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야 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영어는 저에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구강구조가 영어를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부모님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가 확실히 제 언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어린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비행술에 대해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연구하고, 익혔습니다. 제 가장 큰 소망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객기나 전투기의 조종실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 구강구조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동기를 주는 힘에 대해
가르치다.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끈기와 인내를 요했으나,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의롭고 강한 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동기를 주는 힘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생각과 합당한 동기의 힘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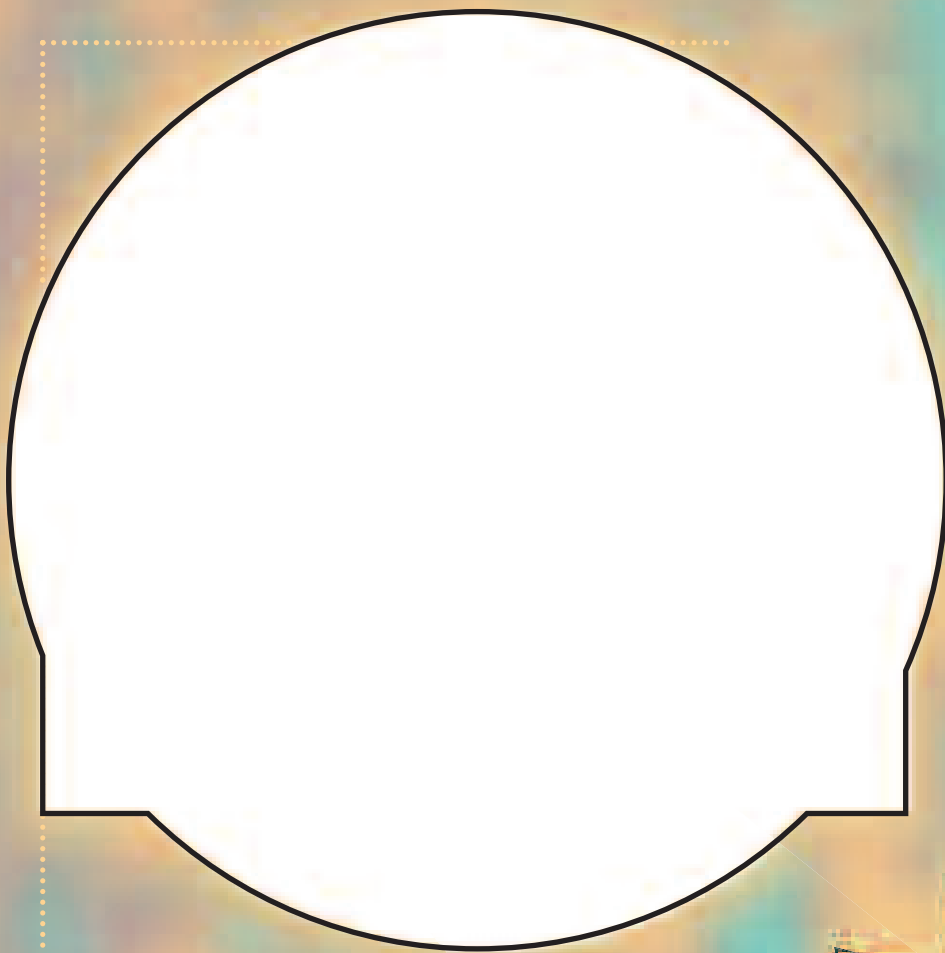
실재와 진리와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 그리고 후기의 선지자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동기를 주며,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증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

200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하신 말씀.

생각해 볼 점

1.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영어를 배우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에게 쉬운 것이었는가? 무엇이 그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변화시켰는가?
2. 소망을 의롭게 하거나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어를 배우려는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소망은 어떠한 면에서 의로운 것이었는가?
3. 간증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동기를 주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간증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를 주는 힘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상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임이라.” (니파이후서 32:5)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활동

빈 원과 두 쪽으로 나누어진 반원을 오려낸다.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두 쪽으로 나누어진 원의 조각을 빈 원에 풀로 붙인다. 성구를 읽고 침례와 확신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참조: “리아호나에서 페이지를 떼어 내고 싶지 않으면,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하늘 왕국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여덟 살일 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7)

린다 크리스텐슨



옛날 옛적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서
침수로써 요단 강에서 침례 받으셨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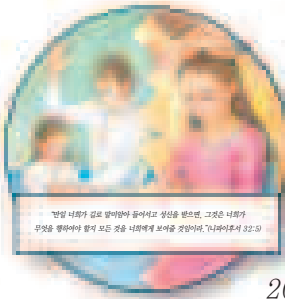
“율법 이루려 함이라”
예수 말씀하셨네
“아버지와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 함일세”

우리도 주 말씀 따라
믿음 증거해 보세
예수처럼 침례 받고
우리 순종 보이세
(“침례”, 어린이 노래책, 54~55쪽)

여덟 살인 맥켄지는 최근에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 받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저는 순수함과, 편안함, 설레임,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곱 살인 매튜는 자신의 침례와 확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권을 지닌 형제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와 맥켄지는 침례와 확인을 받는 것이 계명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침수로써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 받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몇 가지 임을 상기시켜 주는 친4쪽에 설명되어 있는 원형 퍼즐을 완성하십시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초등학교3 제11과 53쪽에 나와있는 질문과 대답 게임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각 반을 위해 질문과 서로에게 건네 줄 물건을 제공한다. 어린이들에게 침례와 확인을 받는 것은 계명임을 가르친다.(교리와 성약 68:27 참조) 복음 그림 패킷, 208(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을 보여 주고,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복습한다. 어린이들에게 침례와 확인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권유한다. 침례 시 맺은 성약들을 복습한다. 각 반에 게임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마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 침례를 받고 싶어했던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초등학교3, 53쪽 참조) 침례와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고 침례나 성신의 은사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2. 칠판에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라고 권유한다. 칠판에 “예수 그리스도를”이란 단어를 앞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말이 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게 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러분이 성찬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어린이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간단한 힌트를 서너 가지 준다. 복음 그림 패킷 603(성찬 축복)과 604(성찬 전달)를 보여 준다. 그들이 성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도록 권유한다. 성찬 기도문(교리와 성약 20:77)을 읽고, 어린이들에게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귀 기울여 경청하도록 부탁한다.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하기 위해 성찬식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한다.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을 복습하고,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이해시킨다. 침례 성약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마친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의 여행 동안
일어난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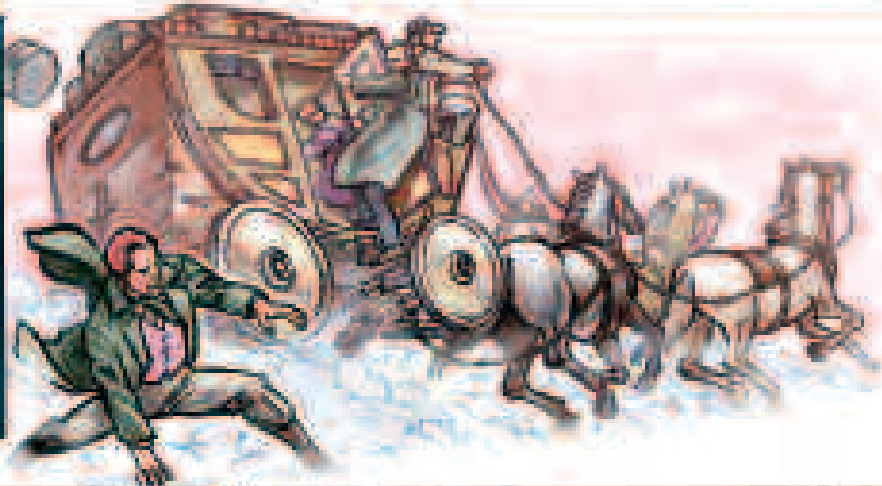
1832년 봄, 조셉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미주리 주에 살고 있는 후기 성도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곳으로 여행했다. 그들의 일을 마친 후, 조셉은 시드니 리그돈과 뉴얼 케이 휘트니와 함께 오하이오 주로 돌아오려고 마차에 탔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동안, 갑자기 마차를 끌던 말들이 놀랐다. 휘트니 형제는 마차에서 뛰어내리려고 시도했으나, 그의 코트가 걸려 그의 발이 바퀴에 끼었다. 그의 다리와 발이 부러졌다. 조셉은 다치지 않고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조셉이 4주 동안 휘트니 형제와 함께 머물면서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는 동안 리그돈 형제는 여행을 계속했다.



조셉과 휘트니 형제는 여관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잤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조셉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조셉이 식중독에 걸린 것이었다.



휘트니 형제가 조셉에게 축복을 주었다.



식중독이 매우 심했는데도 조셉은 즉시 나왔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휘트니 형제는 거의 4주 동안 그의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조셉은 축복을 통해 식중독에서 벗어난 그 다음날 아침, 그에게 다시 여행을 시작하도록 부탁했다. 조셉은 그에게 여행이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약속했다.

만일 형제님이 집을 향해 출발하기로 동의하면, 우리는 마차로 강까지 갈 것이며, 그곳엔 우리를 건너게 해 줄 배가 있을 겁니다.

그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배를 탈 것이며, 우리는 순조롭게 집으로 여행하게 될 겁니다.

네, 가겠습니다.



조셉과 휘트니 형제는 집을 향해 그들의 여행을 시작했다.

여행은 조셉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저는 경건할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 에커셀詹슨

설명: 다음 두 페이지에 색칠을 하고, 그 두 페이지를 두꺼운 마분지에 붙인다. 점선을 따라 그림을 오려낸다. 페이지 옆 면의 표시를 따라 구멍을 뚫는다. 그림을 제목 페이지가 맨 위에 오도록 하여 순서대로 포개 놓는다. 구멍들을 정돈하고, 리본이나 실로 여러분의 책을 함께 묶는다.



참조: "리아호나에서 페이지를 떼어 내고 싶지 않으면, 이 활동 부분을 복사 하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Languages"를 클릭한다.



다음엔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을 ...
신뢰하라.”(교리와 성약 11:12)

서니 맥클레란 모든

실화에 근거함

“거의 끝났구나.” 마누엘은 속삭였다. 그는 자기 팔 밑에 있는 상자를 혼자 흘깃 보았다. 사탕이 거의 다 팔렸다. 지금 그의 상자에는 돈이 가득 든 봉투가 있었다.

태양이 마누엘의 머리 위에 강렬하게 내려 비쳤을 때, 그는 집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최근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누엘도 똑같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안다. 그들이 모두 다음 일요일에 침례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저리 비켜!” 누군가 갑자기 마누엘의 뒤에서 외쳤다. 마누엘이 길가의 배수로로 뛰어 내렸을 때, 네 명의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빨리 지나갔다.

마누엘은 전에도 그 소년들이 길 건너편의 인도 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순간 그의 머리에 그 소년들을 멀리 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지나갔을 때, 마누엘은 안심했고 그들에 대해 잊어버렸다. 이제 다시 그 느낌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는 사탕을 다 팔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했다.

마누엘은 소년들이 되돌아왔을 때, 마지막 사탕을 팔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의 어깨를 꼭 잡았다. 그러자 상자가 마누엘의 팔에서 떨어졌으며, 또 다른 소년이 재빨리 지나가면서 그 상자를 집었다. “안 돼!” 하고 마누엘은 외쳤다. 그는 힘들게 번 돈이 든 상자를 그들이 빼앗아 가는 것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마누엘은 그의 침실의 방문을 푹푹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누엘, 나와 보려무나.” 걱정하시는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말했잖아요. 지금 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를 보러 여기 왔단다.”

마누엘은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고는 어깨를 쭉 폈다.

“안녕, 마누엘.” 마누엘이 거실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했을 때, 산토스 자매 선교사가 말했다.

일반적으로 마누엘은 선교사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러나 오늘 밤 마누엘은 그 소년들과 돈이 든 상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 그 소년들을 보았을 때 달아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다시 거리를 걸어 가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는 공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는 안내하며, 우리의 생각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가 훌륭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며, 우리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산토스 자매가 말했다.

마누엘은 쳐다보며, “무슨 뜻이지요?”라고 물었다.

산토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강하게 떠오른 적이 있니? 아마 그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속삭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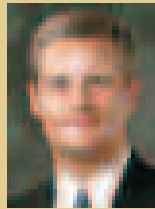
마누엘이 자전거를 탄 소년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강한 느낌에 대해 기억했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느낌이 오늘 일어난 것 같아요.”라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선교사들은 흥미 있게 그를 바라보았다. 마누엘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그렇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소년들과 도둑 맞은 상자에 대해 말했다.

“오, 마누엘, 안됐구나.”라고 그의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게 바로 오늘 저녁 네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였구나. 나중에 내게 그 소년들에 대해 더 말해 주렴. 아마 우리가 네 돈을 찾아 줄 수 있을 거야.”

“정말 안됐구나.” 산토스 자매가 말했다. “하지만 난 네가 옳았다고 생각해. 아마 그것은 네가 마음속에 느꼈던 성신이었을 거야.” 산토스 자매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너는 침례를 받은 후 확인을 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을 거야. 그것은 네가 더 많이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합당하다면,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수 있단다. 이제 좀 기분이 어떡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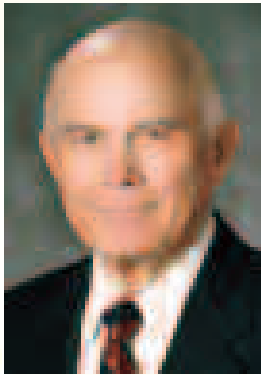
안도의 미소가 마누엘의 얼굴에 번졌다. “훨씬 좋아졌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밖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항상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지만 성신이 오늘 한 것처럼 다시 내게 경고해 준다면, 저는 아무 탈 없을 거예요.” 그는 어머니에게 씩 웃었다. “다음엔 성신이 제게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



“주님의 영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필멸의 여정 동안 인도와 가르침과 영적인 보호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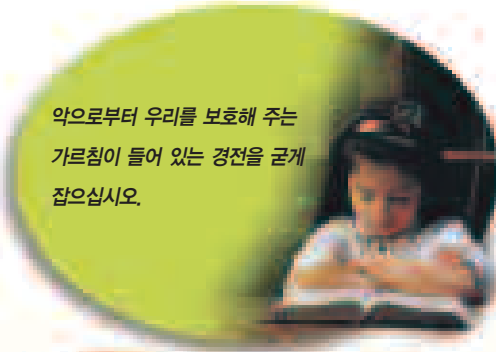
어떻게 제가 영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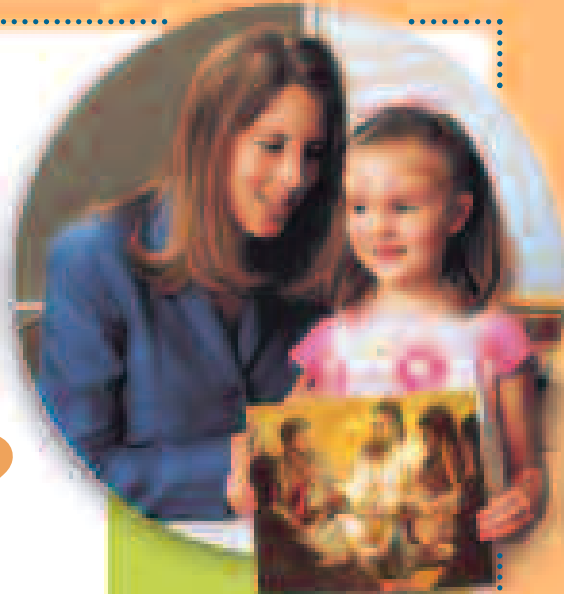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했다.

매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의 성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가르침이 들어 있는 경전을 굳게 잡으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인도를 구하며,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하십시오.



결코 영을 몰아내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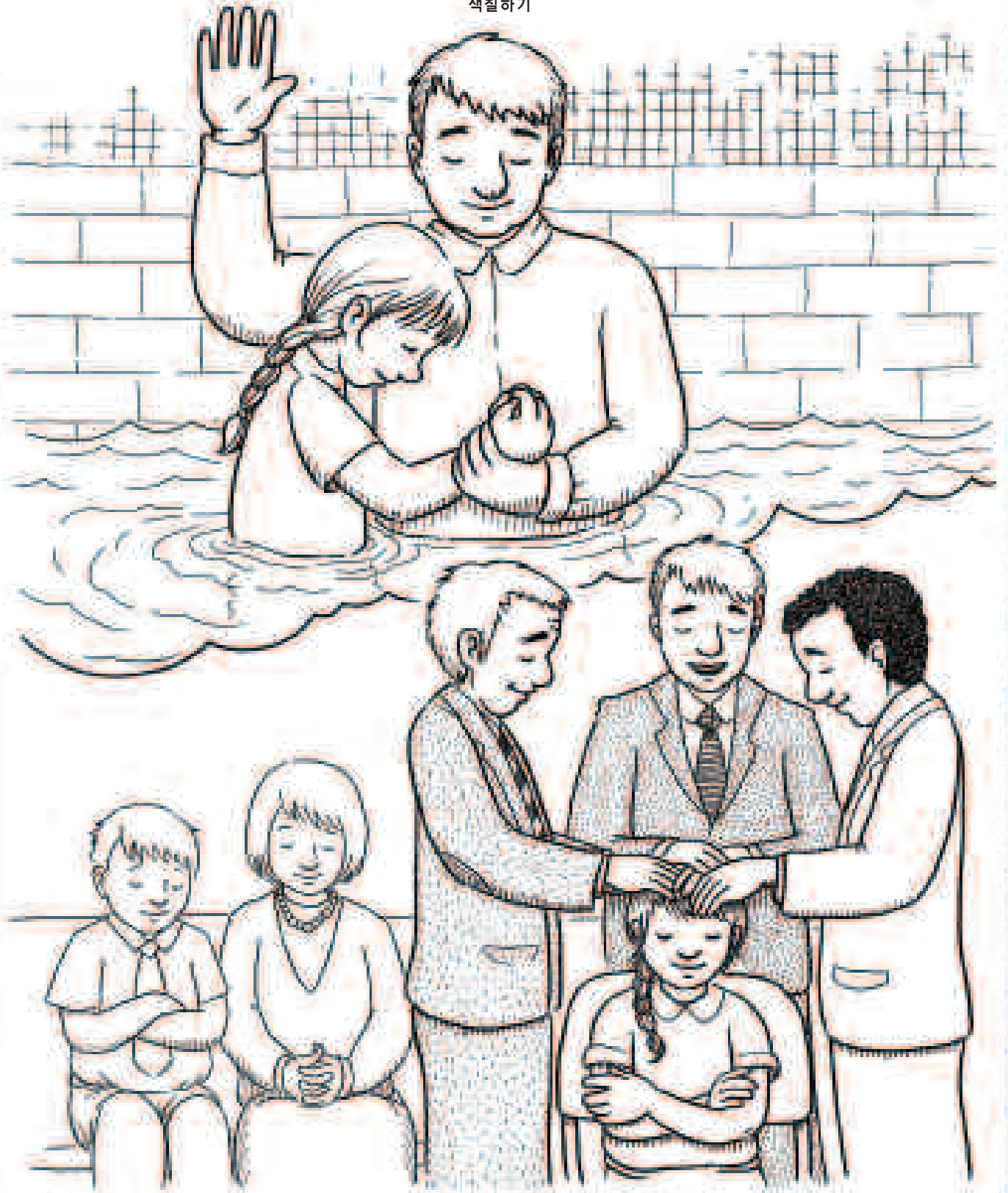
여러분은 의로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의로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니, 계속해서 의로움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주의 영을 몰아내어 속임수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의 몸 안으로 취하거나, 우리의 몸으로 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5~46쪽에서 발췌.

색칠하기



저는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의 신앙을 보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여덟 살일 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8:27)

파블로의 실천

바로 여러분처럼 세계의 여러 곳의 어린이들은 기도하고,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며, 복음에 대해 배운다. 이달에는 과테말라, 시우다드 비에하의 파블로 치로이를 만나 보기로 하자.

파블로는 선교사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전거를 탄다. 그는 벌써 시우다드 비에하에 있는 그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다.

파블로의 침례

파블로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다. 파블로는 기쁘면서도 또 조금 불안했기에 그의 아버지가 그곳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저는 물에 빠질까 봐 조금 무서웠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침례 후 그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느꼈다. “저는 색다른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느낌이었기에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파블로의 선교 사업

선교사들이 파블로의 가족에게 가르칠 사람들을 찾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을 때, 파블로는 선교사들의 소책자들 중 한 권을 미리 챙겼다. 다음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의 어머니에게 그것을 주었다.

“파블로는 아침마다 친구의 어머니에게 소책자를 다 읽어 보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전 그 아이가 친구의 어머니가 다 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그의 아버지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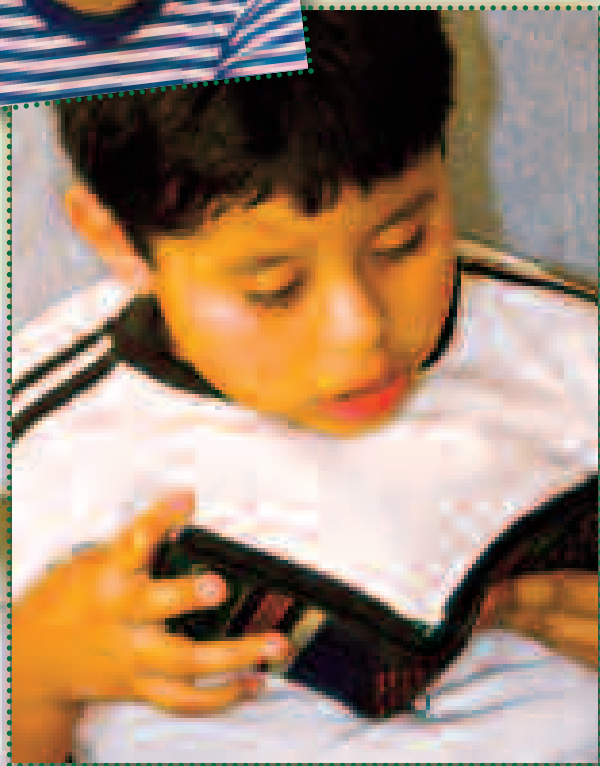
파블로의 과테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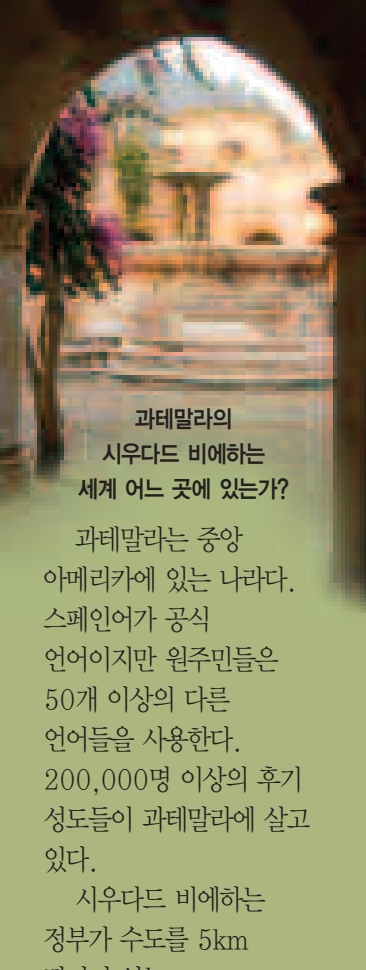
파블로는 새로운 곳들을 방문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보기를 좋아한다. 아주 흥미로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다.

파블로는 “구 과테말라”라는 이름을 가진 안티구아 과테말라의 교외에 살고 있다. 이



파블로 치료이와 그의 가족은 옛 건물들이 많은 도시인 안티구아 과테말라 인근에 살고 있다. 파블로는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하며, 아버지처럼 자원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 (위)





**과테말라의
시우다드 비에하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가?**

과테말라는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다.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원주민들은
50개 이상의 다른
언어들을 사용한다.
200,000명 이상의 후기
성도들이 과테말라에 살고
있다.

시우다드 비에하는
정부가 수도를 5km
떨어져 있는
안티구아로
이전하기 전
과테말라의 초기
수도들 중 하나였다.
(위와 아래에 있음)



위: 파블로는 팽이 놀이를
좋아한다. 오른쪽: 그와
그의 부모인 조르제와
클라우디아, 그리고
여동생인 안드레아와
소피아는 화산들로
둘러싸인 계곡에서
살고 있다. (아래)

파블로가 좋아하는 것들

- 팽이 가지고 놀기
- “주 섬기라” 부르기
- 자전거 타기
-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 축구 하기
- 독서 (특히 경전과 리아호나)
-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기



파블로의 가족

파블로의 가족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특히
가정의 밤에서 함께
노래하기를 즐긴다.

파블로에게는 여섯 살인
안드레아와 두 살인 소피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다. 그는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좋은 오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 놀아 준다. 안드레아는 그것을
좋아한다. 여동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를 우러러본다.

파블로의 아버지는 자원 소방관으로 봉사한다.
파블로는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도와 준 후에
언젠가는 자신도 소방관으로서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사진 촬영: 필립 앤더슨 © PR

영구 교육 기금을 받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귀환 선교사들이다.

영구 교육 기금, 늘어나는 기적

몰리 파머, 교회 잡지

최 근에 귀환한 선교사인 비웨 소즈와의 일과는 고된 것이었다. 남 아프리카의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개종한 그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한 후, 저녁 8시 또는 9시까지 공부했다.

그렇지만 소즈와 형제는 자신의 바쁜 일과에 대해 귀찮게 생각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소즈와 형제는 영구 교육 기금의 수혜자이다. 이 기금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좀 더 실질적으로 교육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현재 27세의 컴퓨터 엔지니어이며 스테이크의 집행 서기인 그는 자신이 받은 많은 축복들이 영구 교육 기금을 통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이 영감 받은 프로그램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빈곤을 극복할 기회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2001년 3월 연차 대회에서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와 교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줄 기술을 획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젊은 선교사들이 충실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 말씀 가운데, 헝클리 회장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귀환할 때 당면하게 되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의 소망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이전의 빈곤 속으로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1쪽)

1800년대에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동하도록 도운 영구 이민 기금과 같은 원리에 기초를 두고, 교회 지도자들은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가난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젊은 회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미래의 지도자로서 준비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하도록 돕는다.

를 희망한다.

직업, 기술 및 전문 훈련을 위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18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의욕적인 참가자들에게 취업 기술을 배우며, 많은 부채를 쌓지 않고 자립과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칠십인 정원회의 명예 회원이며 영구 교육 기금의 집행 책임자인 존 케이 카먹 장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지 기회와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 젊은이들이 더 배우고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며,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줍니다.”라고 카먹 장로는 말했다.

문을 열어 줌

소즈와 형제는 항상 대학에 다니고자 계획했었지만, 그와 어머니에게는 학비를 낼 만한 돈이 없었다. 일반 은행 대출이 가능했지만, 높은 이율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 대신에, 소즈와 형제는 그의 지역에서 봉사하는 교회 교육 기구의 부부 선교사로부터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는 1,150 달러의 영구 교육 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가지고, 포트 엘리자베스에 있는 다멜린 대학 컴퓨터 공학과에 등록했다.

약 1년간 공부한 후에, 소즈와 형제는 IT 컨설팅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의 받았다. 그 회사는 그와 남은 학기를 다 마치도록 기다려 주었고,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그를 지원해 주었

다. 직업을 갖게 된 그는 이듬해에 자신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으며, 회사는 지난 4년간 그가 노동 관계, 법인 관리, 기업 관리 및 경영, 그리고 선진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를 추가로 공부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은 세계 필요했던 것들을 시작하기 위한 도움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처음 시작을 위한 도움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세계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 일어날 더 많은 기적들

헝클리 회장이 7년 전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래, 약 28,000 명의 젊은이들이 영구 교육 기금 대출을 받았으며, 그들 중 반은 남자였고, 나머지 반은 여자였다. 프로그램은 멕시코, 페루 및 칠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전세계 40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젊은 회원들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영구 교육 기금을 갚아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확장되었는데, 몽골, 캄보디아, 케냐, 가나, 남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의 몇몇 섬들 및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십일조 및 현금 명세서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할당해 내는 회원들과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는 교회의 친구들에 의해 조성된다. 모금된 돈(기금)은 결코 사용되지 않으며,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대출을 지급한다.

“회원들과 [교회의] 친구들은 아주 관대했습니다.”라고 카멕 장로는 말하고는 핑클리 회장과 몬슨 회장 모두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다.

카멕 장로는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한다.

성스러운 기금을 상환함

자신의 대출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소즈와 형제는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 관대한 기부금을 사용하기를 바랐다.

“저는 이것이 성스러운 기금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교육을 위해 기부했으므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돈은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좋은 미래를 시작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두 손으로 그러한 기회를 붙들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도 영구 교육 기금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자신들의 나라와 교육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회원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 졸업생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나라에서 교회를 강화하고 있다고 카멕 장로는 말했다.

“이들은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십일조와 헌금을 낼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는 그들때문에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핑클리 회장은 말했다.

학생들이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그 돈은 교육을 위해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영구적인” 기금이 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함

소즈와 형제는 이 원리를 이해했으며, 자신이 가졌던 것과 같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도 얻도록 도와 주겠다는 동기를 부여 받았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발전할 기회뿐 아니라 다음 사람을 도울 기회도 주십니다. 다음 사람이 동등하게 배우고 발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게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립과 계명을 지키는 힘뿐 아니라 지도력 기술과 독립심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이나 학위만을 획득하는 것도 아



영구 교육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교육을 통해 남아프리카에 사는 바이웨 소즈와 형제는 앞으로 그의 남은 교육 비용을 지원해 줄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닙니다. 직업을 얻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문을 열어 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적은 돈이 세대를 변화시킴

소즈와 형제는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 자신에게 베풀어진 관대함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단계였을 때 기부한 사람들을 만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적은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대를 변화시켰으며, 제 가족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

신임 선교부 회장들이 봉사를 시작하다

세 일회장단으로부터 온 임무 지명을 받아들인 124명의 신임 선교부 회장들이 2008년 7월 1일, 또는 그 즈음에 봉사를 시작했다.

선교부	신임 회장
한국 부산	케네스 웨인 제닝스 이세
가나 아크라	바이런 린지 스미스
가나 케이프코스트	멜빈 번스 새비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노스	데이비드 제이미 토레스 로드리게스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사우스	허버트 에드가르도 알바라도 렌데로스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센트럴	리차드 앨런 볼드윈 이세
과테말라 케살테낭고	라몬 다리오 로렌자나 레이스
나이지리아 라고스 웨스트	게리 레슬리 뉴더
나이지리아 라고스 이스트	스펜서 베니언 존스
나이지리아 에누구	제리 리드 보게스
남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데이비드 에드워드 폴슨
남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랜들 케이 프로브스트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피터 케빈 크리스티슨
뉴 저지 모리스타운	에이 리 바
뉴질랜드 오클랜드	벤슨 리 포터
뉴질랜드 웰링턴	클리브 리차드 줄리프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웨스트	후안 에반젤리스타 알몬테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이스트	길레르모 아르투로 안타빌로 로하스
독일 뮌헨/오스트리아	로버트 기드온 콘디
독일 프랑크푸르트	케빈 존 니로우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게나디 니콜라예비치 포드보도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제임스 스코트 런던버그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윌리엄 조지 우즈
멕시코 멕시코시티 노스	다릴 난콜라스
멕시코 베라크루스	제이 피터 한스

멕시코 오악사카	레오바르도 데 라 크루스 로살레스
멕시코 토레온	브루스 리차드 클라크
멕시코 투스틀라	기티에레스 길레르모 벨라스코 코로나도
멕시코 티후아나	로버트 허난 헤인
멕시코 푸에블라	스티븐 글렌 렉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마크 더글러스 하우엘
미시간 랜싱	마크 두클로스 존스
미주리 인디펜덴스	조지 조한 윌리엄 밴 코멘
발트해	더글러스 레온 댄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프레디 발렌틴 헤레라 몰리나
볼리비아 코차밤바	미구엘 앤젤 테노리오 도민구에스
브라질 레시페	마리오 헬리오 에머릭
브라질 리베랑프레투	리카르도 비에이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노스	스cott 워렌 피켓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안토니우 카울레 마차두 베제라
브라질 마나우스	데이비드 우드워드 제이미
브라질 마세이오	게리 레이 벤투

브라질 브라질리아	겔손 피지라니
브라질 살바도르	카를로스 로베르투 톨레두
브라질 상파울루 노스	제프리 린 쿨리
브라질 상파울루 사우스	스티븐 대로우 리차드슨
브라질 상파울루 인테리아고스	크리스토퍼 조지 잭슨
브라질 포르탈레자	앨런 찰스 배트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윌터 게데스 케리로스 이세
사모아 아피아	오토 빈센트 할레크 이세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럼비아	스티븐 로우엘 맥콩키
스웨덴 스톡홀름	래리 어네스트 앤더슨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데이비드 헨리 힐
아르헨티나 레시텐시아	호세 루이스 델 카스틸로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호세 마르시알 빌발바
아르헨티나 멘도사	제임스 블레인 린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서	에브렛 웨이드 벤튼
아르헨티나 살타	댄 노스거트
아칸소 리틀 록	로버트 와이먼 드류스
알래스카 앵커리지	앨런 로이 댄스
알바니아 티라나	존 마틴 닐
애틀랜타 투손	웨슬리 폴 워커
애틀랜타 피닉스	폴 셔먼 벅
에콰도르 과야킬 노스	호세 윌슨 감보아 갈베스
에콰도르 키토	티모티 퀸 슬로안



124개의 선교부 선교사들이 금년에 신임 선교부 회장들을 맞이했다.

앨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웨스트/벨리즈
 알레한드로 로페스 모타
앨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이스트
 알렉스 모로나이 페레스 올린
오리건 유진
 토마스 윌리엄 맥도널드
오리건 포틀랜드
 티모티 존 다이치즈
오하이오 콜럼버스
 로버트 포레스트 젠슨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루이스 게라르도 차베리 마드리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티모티 리 프라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레인 오리 스타인아겔
워싱턴 타코마
 하베이 캔트 보웬
웨스트 버지니아 찰스턴
 마이클 윌리엄 토모크
일본 고베
 윌리엄 아서 매킨타이어 이세
일본 삿포로
 리 앨포드 대니얼스
일본 센다이
 리드 타테오카
일본 히로시마
 요시아키 이사
잉글랜드 맨체스터
 데이비드 존 볼록
조지아 메이컨
 마크 올리버 보우먼
조지아 애틀랜타 노스
 스티븐 더글러스 킹
칠레 산티아고 노스
 마이클 에드워드 메이
칠레 오스르노
 케네스 데이비드 로벨
칠레 콘셉시온 사우스
 조 닐 스웬슨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조셀리토 메디나 코스타 네베스
캐나다 밴쿠버
 캔트 크루거 넬슨
캐나다 토론토
 이스트 크리스 앨런 에어
캘리포니아 로우즈빌
 마크 제임스 펜델튼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멜빈 켈프 리브스
캘리포니아 벤투라
 웨인 데일 머리
캘리포니아 산호세
 에릭 마이클 잭슨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제임스 스텠퍼트 자딘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켄터키 루이스빌
코네티컷 하트퍼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콜로라도 덴버
콜로라도 콜라라도스프링스
콜롬비아 칼리
타이티 파피에테
테네시 내슈빌
테네시 녹스빌
텍사스 델리스
텍사스 러빅
텍사스 휴스턴 이스트
텍사스 휴스턴
페루 리마 이스트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파리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피지 수바
핀란드 헬싱키
필리핀 다바오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산파블로
필리핀 세부
필리핀 에인젤스
필리핀 울롱가포
필리핀 태클로반

리 레오나르도 도널드슨
오스카 아서 파이크
스티븐 베넷 와트로우스
존 아서 곤잘레스
스티븐 조지 글렌드
휴 게리 퍼슨
야포 아예코우에
노스 게리 게이 엘리
브라이언 로알 파일

장로와 1명의 자매가 주님을 섬기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헌신을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일들이 행해졌는가? 그것은 가족의 통찰력, 훌륭한 모범, 그리고 일찍부터 선교 사업 준비를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었다.

가족의 통찰력

크리스토퍼 로 형제는 최근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선교부에서 귀환했다. “제가 언제 선교사로 봉사하리라고 결심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리라고 생각했죠. ...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우리 가족이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였거든요.”라고 그는 말했다.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도록 자녀들을 도와 준다면, 이는 그들이 열정을 가진 헌신적인 청소년으로 자라나도록 도울 것이다.

보이저 와드의 윌리엄 왓코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의 부모들이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온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남들이 집사로서 아론 신권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고, 십대 시절을 보내면서 복음에 충실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더욱 커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선교사들은 가족을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게 될 것들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다. 가정의 밤은 자녀들이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도구 중 하나이다.

선교사 준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와드 회원들

린다 엘 헨슨, 교회 잡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강하고 협조적인 가족들은 청소년들이 전임 선교사로서 복음을 나누도록 준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헌신적인

선교사들의 세대가 나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길버트 애리조나 발 비스타 스테이크 보이저 와드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다. 지난 2년간 310명의 회원 중 21명의



로 형제 가족은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 구절에 표시를 하며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 매일 아침 가족 경전 공부 시간을 갖는다. 가족 구성원들(왼쪽부터) 귀환 선교사인 어머니 재니스, 매디, 브룩클린, 최근에 보스턴 매사추세츠 선교부에서 귀환한 크리스토퍼, 귀환 선교사인 아버지 달린, 켈린, 그리고 잭슨. 그들의 아들인 패트릭은 현재 플로리다 올란드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다.

제사 정원회의 고문이자 한 선교사 자녀를 둔 프랭크 랭 형제는 새로운 회원이든 기존 회원이든 간에 부모들에게 가정의 밤을 갖도록 권고했다. “가정의 밤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 선교사 준비의 필요성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회를 자주 갖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로 형제는 가정의 밤이 가족으로서 회원 선교 사업을 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선교 사업을 가족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훌륭한 모범

실질적이며 영적인 준비를 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어 가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의 격려와 모범은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가

르침을 뒷받침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모범이자 조언자요, 교사였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집사였을 때부터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떠날 때까지, 지도자들은 그들이 계속 활동 회원으로 남고 또한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라고 왓코트 감독은 말했다.

매달 한 번씩 보이저 와드의 청년들은 수년 전에 봉사한 회원들을 포함한 그들의 와드에 있는 귀환 선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그들의 간증과 삶을 변화시켜 준 선교사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왓코트 감독은 매달 갖는 그러한 경험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랭 형제도 이에 동의한다. “소년들은 지금까지도 그 귀환 선교사들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선교 사업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귀환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간증을 전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보이저 와드의 지도자들은 또한 청년들 중 한 명이 선교사 훈련원으로 떠나기 전, 일요일 저녁에 청년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한 후, 청년들은 선교사업을 떠나는 장로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런 후 그 장로가 자신의 간증을 나눈다.

선교 사업 준비를 우선 순위에도

선교 사업 준비가 부모와 지도자들의 삶에서 우선 순위가 될 때, 청년들의 삶에서도 또한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권 지도자들은 청년이 선교사 연령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례 선교사 준비 반에서, 신권 지도자들은 최근에 귀환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가르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교재는 공과와 토론을 위해 사용된다. 매달 한 번씩 부모들은 이 반에 참석하여 반원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도자 역할을 맡는다.

로 형제의 말에 따르면,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도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미나리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구 익히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 선교 사업 동안 매일 그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과 지도자들의 우선순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또한

준비하기 위한 선택은 반드시 선교사 자신이 내려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이 없다면 아무도 그들을 봉사하도록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 각자는 반드시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개종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나 다른 소년들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랭 형제는 말했다.

두 명의 귀환 선교사, 비 제이와 키아나의 어머니인 비 히아포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자신이 지닌 선택의지를 사용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청남이나 청녀가 봉사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재정적인 면이나 가족의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계도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다면, 그들은 그들이 봉사하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발 비스타 스테이크의 로테르 블루스 회장은 말한다. ■

음악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포르투갈어 자료들은 음악의 지휘 또는 반주를 위한 지침과, 찬송가를 단순화시킨, PDF 버전의 *쉽게 편곡된 찬송가(Hymns Made Easy)*도 들어 있다.

웹 사이트의 코오디네이터인 다이앤 배스티언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2005년 이래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음악 웹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에서 현재는 4개의 언어만 이용 가능하지만, *어린이 노래책*을 녹음한 노래는 10개의 언어(덴마크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것을 교회 배부과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녹음된 찬송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것을 구할 수 있다.

교회 음악 웹 사이트는 2004년 회원들이 교회 음악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인 Interactive Church Music Player는 사용자들이 교회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를 보고, 듣고, 그리고 인쇄할 수 있게 해 준다. 모든 음악은 PDF 자료 또는 MP3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더 알아보려면 www.lds.org/churchmusic을 방문한다. ■

박물관에서 교회 미술 대회를 위한 작품들을 모집하다

전 세계로부터 작품을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은 제8회 국제 미술 대회를 위해 회원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미술 작품들을 출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대회는 3년마다 열리며, 후기 성도 전문 또는 아마추어 미술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번 대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함”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주제를 반영하는 약 225개의 작품들이 2009년 3월에 시작되는 전시회에 진열되도록 선정될 것이다.

전 세계의 미술가들이 좀 더 쉽게 작품을 제출하도록, 작품은 새로운 인터넷 기반의 제출 도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모든 작품 제출은 반드시 온라인 또는 우편 소인 날짜로 2008년 10월 10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주소로 박물관에 연락한다.

Museum of Church History and Art
45 N. West Temple Rm. 200
Salt Lake City UT 84150-3470

이 대회에는 2008년 말까지 18세 이상인 되는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다. 전시회를 위해 선정된 미술 작품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경험이 포함될 것이다.

주제, 규정, 심사 및 작품 제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lds.org/artcompetition에 나와 있다. ■

교회 음악 사이트에서 전 세계의 음악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다

최 근에 업데이트 된 교회 음악 웹 사이트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및 포르투갈어 찬송가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노래책*과 스페인어 찬송가를 녹음한

Eighth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2008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동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8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하늘 왕국”을 참조한다.

1. 여러분이 “성신”(어린이 노래책, 105쪽; *Tambuli*, 1991년 5월호, 친7쪽)을 콧노래로 부르거나 연주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경청하게 한다. 그 노래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단서를 제공 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성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나누게 하고, 초동회 3, 제12과 57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설명을 토론에 포함시킨다.

복음 그림 패킷 601(침례)과 602(성신의 은사)를 보여 준다. 침례, 확인 및 성신의 은사의 의식들에 대해 복습한다. 각 어린이에게 친4쪽에 있는 침례와 확인의 원 종이를 나누어 준다. 그들이 활동을 마치도록 시간을 준다. 이러한 의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은 그들이 두 가지 경험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신의 속삭임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경험을 나눈 후, “성령의 작은 소리 들을 수 있네”로 시작되는 “성신”의 2절 마지막 두 소절을 노래한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축복과 여러분이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성신이 어떻

게 도와 주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2. “침례 성약을 지킴”(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친8쪽) 게임을 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준비한다. “다시 깨끗해짐”(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친10쪽)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칠판에 회개의 단계를 적고, 어린이들과 함께 그 단계를 복습한다.(초동회 3, 제10과, 46쪽)

“침례 성약을 지킴” 게임을 한다. 게임판 위에서 뒤로 몇 칸 물러나게 될 때마다 회개의 단계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도록 한다. 회개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고 게임을 마친다. 회개에 대하여 간증한다.

3. 노래 발표: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리아호나, 1997년 9월호, 친5쪽) 복음 그림 패킷 208(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을 보여 주고, 어린이들에게 그 일에 대해 아는 것을 나누도록 한다. 마태복음 3장 13~17절을 읽는다.

여러분이 노래를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경청하도록 한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누가 그곳에 있었는가?”, “내가 침례 받을 때,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어떻게 나는 침례를 받는가?”,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권능이 사용되는가?”, “내가 침례 받을 때 나는 누구의 왕국의 회원이 되는가?”, “매시간 나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르칠 때,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간증한다.

이 노래의 멜로디는 평온하고 부드럽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경건히 부르도록 인도한다. 본래 빠르기보다 조금 더 천천히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사에 익숙해지면 본래의 빠르기로 부른다. 이 노래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 두 단은 부드럽게 부르고 세 번째 단에서 멜로디 음이 높아질 때 더 크게 불러본다. 마지막 단에서는 멜로디 음이 낮아지므로 어린이들이 마지막 단에서는 다시 부드럽게 부르도록 알려준다. ■



삶을 위한 신체 단련

신 체 단련을 성취하는 것은 금년이나 앞으로 5년에 걸쳐 완성하는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하는 일이며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은 우리가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선물의 하나이다.

그러한 습관은 가족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함께 운동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된다. 가족은 뒷마당이나 공원에서 또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볼을 튀기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춤을 추는 한편 조깅을 할 수도 있다. 때때로 이와 같은 가족 운동 모임은 미리 선정해 둔 음악에 맞추어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모두가 음악이 멈출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다.

신체 단련은 비싸고 멋진 장비를 살 필요 없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 부모는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공을 제공하거나 농구 슈트를 하도록 창고 옆에 후프를 달아 주거나, 또는 줄넘기를 하도록 집의 옆 쪽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단순한 장비로 자녀들은 신체 활동을 요하는 게임과 개인 놀이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열중할 수 있다. 만일 정교한 장비를 바란다면, 예를 들어, 고정된 자전거, 미니 트램펄린, 또는 역기 등은 종종 특별한 때를 위한 가



족 선물로서 마련할 수 있다.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종종 어른들이 규칙적인 가족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동기가 된다.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또 계속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류의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종류의 신체 활동을 즐긴다. 건강에 유익한 운동이 반드시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운동일 필요는 없다. 그것이 심장 혈관의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또한 운동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운동 모임은 경전 테이프를 경청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TV프로그램을 보면서,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접근 방법이 어떤 것이든, 운동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특별한 시간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가족 신체 단련에 초점을 맞춤”에서 발췌, 엔사인, 1990년 9월호, 28쪽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음 호 복지 기사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과 관련된 여러분의 사연을 아래 주소로 2008년 8월 10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소속 와드/지부에 대한 정보와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53-1395
이메일: JeonGW@ldschurch.org(전건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재조직

제1보좌에 칠십인인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성임

20 08년 8월 1일부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이 재조직 되었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회장과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새로운 제1보좌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를 맞이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2008년 4월 5일, 52세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되었다. 그는 부름을 받을 당시 와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소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1955년



8월 6일, 유타 주 욱든에서 태어났다. 1979년 4월, 그는 리사 진 하일리와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스티븐슨 장로는 1979년에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마케팅 중심의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Icon Health &

Fitness, Inc. 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COO)로서 일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시와 지역 사회에서 여러 활동에 관여해왔다. 현재는 브리검 영 대학교 매리어트 스쿨의 전미 경영 자문 위원회 일원이며, 유타 주립 대학교 재단 위원을 맡고 있다. 스티븐슨 장로는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장로 정원회 회장, 고등 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단 보좌, 대체사 그룹 지도자,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일본 나고야 선교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등 여러 교회 부름에서 봉사했다. ■

새로운 부산 선교부 회장



부 산 선교부 회장으로 새롭게 부름 받은 케네시 웨인 제닝스 회장과 제닝스 자매가 2008년 7월 1일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다. 감독, 고등평의원, 지부 회장단, 그리고 초등회 교사로도 봉사한 제닝스 회장과 와드 초등회 회

장과 음악 책임자 등으로 봉사한 제닝스 자매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제닝스 회장은 1968년에 한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오면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한 제닝스 회장은 서울과 대구, 그리고 춘천과 군산 등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 그 인연과 애정은 제닝스 회장이 한국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1981년부터 다시 이어졌고, 한국 서울 성전 건립 등의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제닝스 회장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14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한국을 잊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부산 선교부 회장이라는 부름을 받은 제닝스 회장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아내와 함께 큰 기쁨을 나누었다. 선교 사업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제닝스 회장은 한국 성도들의 리더십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 전역에 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봉사를 시작한 제닝스 회장 부부의 목표는 제닝스 회장의 부모에게 찾아온 두 명의 선교사 때문에 가족 전체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다. ■

캐나다 한인 지부 설립

2008년 6월 22일 캐나다 밴쿠버에 “밴쿠버 스테이크의 제5지부”로 한인 지부가 새로이 조직되었다. 초대 한인 지부 회장으로는 허충석 형제, 제1보좌는 정희모 형제, 제2보좌는 최형권 형제, 그리고 서기로 박옥진 형제가 부름 받았다.

이로써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그 지역 와드 감독단의 감리 하에 가졌던 한국어 성찬식과 주일학교를 끝내고, 6월 29일부터 밴쿠버 중심부에 위치한 스테이크 센터인 버나비 와드에서 독립적인 지부 모임을 가졌다. 이날 한인 지부 조직을 위해 밴쿠버 스테이크의 워커 회장과 두 보좌가 참석했고, 서리 스테이크의 소울 회장도 참석했다.

새로 부름 받은 지부 회장단과



그 아내들은 우리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부가 발족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간증들을 나누었다. 또한 이들은 언어소통의 부족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적기에 한인 지부라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까지 한인 성도들을 이끌어 준 지역 지도자들에게 감사

를 돌렸다. 새로 부름 받은 허충석 한인 지부 회장은 “주님의 사업에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간증과 함께 한인 지부에 참석하는 모든 가족들과 개개인이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했다. ■

〈기사 제공 : 부부 선교사 권찬태 장로, 김정애 자매〉

브리검 영 대학교 한국 지역 총 동문회

2008년 6월 14일 브리검 영 대학교 한국 지역 총 동문회가 미 8군 용산 부대 내 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브리검 영 대학교 프로보, 아이다호, 하와이 캠퍼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와드와 지부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며 빛을 발하고 있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모임은 BYU-하와이 졸업생인 북아

시아 지역 회장단 최윤희 장로의 감리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기소개, 바비큐 파티, 자매 야구, 형제 축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는 100여 명의 BYU 동문 및 가족이 참석했다. 동문들은 이 모임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



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문회에서 준비한 티셔츠를 모임 시간 내내 입고 활동에 참여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많은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도 참여했다. 현재 BYU 한국 지역 총 동문 회장으로는 박환수 형제가 수고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총 동문회 모임을 매년 개최하고, BYU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귀국하는 후배들을 위한 진로 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총 동문회 모임을 계기로 BYU 동문들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 교회 발전에도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현대의 방향구가 되는 잡지, 리아호나

우 리나라에는 총 4,000여 종의 잡지가 있다. 매일 30개 이상의 잡지가 새로 탄생하고, 그만큼인 30개 정도의 잡지가 사라진다. 시사, 교양, 여성, 학습, 종교 등 27가지로 분류된 4,000여 종 잡지 중 무가지, 즉 비매품으로 유통되는 사보나 협회보가 1,700여 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돈을 받고 파는 매품 잡지들이다. 그렇다면 매품 잡지 중 제일 저렴한 가격의 잡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리아호나'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리아호나의 가격 속에는 '현대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이 값진 잡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는 따뜻한 배려가 들어 있다. 리아호나는 선지자의 말씀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회원들의 간증을 전하는 잡지다. 리아호나는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해 광야를 여행하던 리하이가 발견한 같은 이름의 나침반처럼 오늘 날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면전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리아호나를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와 리아호나를 읽으며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방향구가 되는 잡지, 리아호나를 소개한다.

“가장 값진 선물”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의 김정희 자매가 리아호나 담당자로 부름 받은 것은 작년 5월쯤의 일이다. 평소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었지만 새로운 이 부름 또한 김 자매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을 감독님에게 여러 번 호소와 표현했었던 김 자매에게 박일훈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리아호나는 현대의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들어 있는 주님의 양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다는 생각으로 리아호나 구독을 권유하는 건 어떨까요? 우선 200명의 사람에게 리아호나를 나누는 생각으로 시작해보시죠.”

김 자매가 속해 있는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의 활동 회원 수는 110여 명. 감독님의 제안을 들은 김 자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그 때부터 ‘어떻게 하면?’이라는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이 생각했죠. 처음엔 그냥 우선 제가 리아호나 담당자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와드에는 훌륭한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리아호나를 다 보고 있는데 (200부가 되려면) 어떻게 기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김 자매는 그렇게 방법을 연구했다. 회원들이 기분 좋게 리아호나를 기증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주면 좋을까. 김 자매가 선택한 것은 회원들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계기를 찾는 것이었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기증하라고 제안했죠. 아이들 성적이 오르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할 때

도 말이에요.”

김 자매의 노력은 즉각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자매의 남편도 거들었다. 오랫동안 교회와 떨어져 있던 남편이지만 200부라는 실제적인 목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에게 “200부가 달성 되면 그걸 기념으로 나도 10부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김 자매는 리아호나 기증이 선교 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회원들의 리아호나 기증이 선교 사업에 쓰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다.

“평소에 교회에 오라고 말은 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죠. 회원들은 그런 친척이나 친구들을, 감독님은 저활동 회원들의 주소를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와드 선교사님에게도 드려서 구도자들이나 영어 회화반 반원들에게 줄 수 있게 했고요. 영어 회화반 시간에 문제를 맞추거나 할 때 상품으로 회원들이 기증한 리아호나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와드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네 개 선교부에 각각 10부씩 매달 리아호나가 보내지고 있어요.”

김 자매의 성과는 드디어 200부를 뛰



어넘기 시작했다. 거기에 물론 남편이 약속한 10부도 추가되었다. 리아호나 담당자로 봉사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지금, 금천 1와드는 매달 280여부의 리아호나를 보고 있다.

“사실 제가 한 일보다는 교회 회원들이 도와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죠. 한 번도 싫다는 말씀 안 하시고 매달 기증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은 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죠.”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름에서 해임되길 바라며 봉사했다고 말했지만, 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김 자매의 얼굴에서 1년 여 동안의 봉사에서 얻은 보람과 기쁨들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름을 수행하는 데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김 자매는 성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성전에 많이 갔어요. 부름은 여전히 저에게 많은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성전에 다니면서 힘을 얻었죠. 부름이 제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전에 다니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이게 단순히 리아호나 구독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 사업이구나 하는 것 같아요. 리아호나를 누군가에게 기증하는 것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리아호나를 찾아보라”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의 이기옥 형제 가족은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리아호나부터 펼쳐본다. “문제가 생기면 리아호나를 찾아보라.”는 말은 무척이나 친숙하면서도 효과적인 이기옥 형제 가족만의 경구요 교훈이다. 이기옥 형제 가족에게는 리아호나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나침반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종훈이까지 모두 모이는 저녁 시간이면 이기옥 형제 가족은 함께 모여 가족 경전 읽기를 한다. 네 살 배기 막내 종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경전을 뒤적이며 웅얼거리는 것까지는 어느 가정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가족 개인별로 구독하는 자신만의 리아호나를 꺼내 드는 순간부터 이 가정의 가족 경전 읽기 시간은 사뭇 달라진다. “자, 그럼 오늘 리아호나를 읽고 느낀 점은 뭐지?”라는 이기옥 형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족들은 그 달의 리아호나를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부모인 이기옥 형제와 김희경 자매부터 시작해 막내를 제외한 초등학교 5학년 종민이까지 각자 자기가 읽은 리아호나 기사를 요약해서 전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원리와 교훈을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기옥 형제 가족의 이 특별한 리아호나 읽기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아버지인 이기옥 형제의 아이디어였다. “리아호나는 또 다른 경전이라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자의 느낀 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2005년 당시에는 더 어렵던 자녀들이 불평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이기옥 형제는 리아호나 읽을 것을 끊임 없이 독려했고, 한 번 두 번 모임이 계속 될수록 자녀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만이인 종훈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진짜 많이 투덜거렸죠. 하지만 리아호나를 자꾸 읽으니까 점점 재미있게 느껴지고 정말로 참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아호나 읽기에 재미가 붙으면서 멀쩡감치 떨어져 앉아 심드렁하던 자녀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자기가 읽



뒷줄 왼쪽부터: 종옥(중2), 종훈(고1), 김희경 자매
앞줄 왼쪽부터: 종민(5학년), 이기옥 형제, 종미(4세)

은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몇 달 후부터는 리아호나 기사에서 이기옥 형제와 김희경 자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녀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학교 공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발표력이 향상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한 권 두 권 리아호나가 쌓여가듯이 자녀들의 신앙이 커지고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기옥 형제는 리아호나를 읽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간증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학교에서도 리아호나를 읽는 종훈이는 친구가 관심을 보일 때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고 간증을 전한다.

리아호나는 이기옥 형제 가족을 변화시켰다. 텔레비전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가족 간의 대화를 채워 넣게 했으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길을 잃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찾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단단함을 그들은 리아호나에서 찾았다. ■

집회소를 깨끗이 함

“내가 나의 성전에 홀연히 오리라.”
(교리와 성약 36편 8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집회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야곱서 6:7)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 집회소를 사용합시다.”(1997년 7월 호 성도의 빛, “참된 신앙”, 67쪽)라고 말씀했다. 집회소는 예배와 배움의 장소,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도록 헌납된다. 아울러, 집회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증거물이며 교회 회원들의 회생과 헌신의 증거이다. 우리는 몸을 단정하게 가꾸고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는 교회, 즉 집회소 건물도 관

리하고 청소해야 한다.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는 매주 토요일에 두 가정 씩 팀을 구성해 집회소 청소를 한다. 벌써 몇 년 동안 계속돼온 이 청소 방법 때문에 장위 와드 회원들은 영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안식일 모임을 할 수 있다. 회원들은 집회소 청소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장위 와드 회원들에게 교회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자신의 건물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집이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 내 방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듯이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위 와드의 한석용 감독은 가장 효과적인 집회소 관리 방법에 대해 “성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집회소를) 모두가 내 집과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집회소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감독의 말은 집회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 북 시설 운영 사무소의 소장인 송병철 형제는 “모임을 마치고 나면 ‘모임 전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 정리”한다면 집회소 관리가 보다 쉬워진다고 말한다. 서울 남 시설 운영 사무소

의 소장인 김인회 형제도 좋은 방법을 들려준다. “일단 각 건물 관리의 주체가 회원들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밖에 와드 건물 대표를 불러서 모든 회원들이 집회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 시설 운영 사무소의 소장인 김재택 형제가 전하는 방법은 송병철 형제의 그것과 비슷하다. 바로 모임이 끝난 즉시 청소하는 것이다. “의자나 칠판지우개 등의 비품을 사용하고 나면 질서 있게 정리 정돈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다면 바로 진공청소기와 걸레를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설 운영 사무소의 소장인 안경일 형제는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방부 회장, 그리고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덧붙였다. “회원들은 집회소의 청결 상태나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집회소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만큼 영이 충만해집니다.”





집회소 청소와 관리는 결코 어렵지 않다.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창문을 닦는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집회소, 주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은 깨끗하고 성스럽게 변한다. 또한 집회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방에서 음식물을 만들지 않는 등의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우리의 집회소는 주님의 든든한 보호를 받게 된다. 회원들이 집회소를 항상 지혜롭게 사용하고, 주의와 관심과 배려를 기우리고 존경심을 나타내며 어질러 놓은 것을 바로 청소할 때 우리는 “홀연히” 오시는 주님을 언제나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은 회원들의 집회소 관리 참여 내용을 열거한 것이다. 회원들은 다음의 13가지 항목을 지켜 집회소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다.

- 모임이나 활동 후에 청소한다. 이 청소에는 비질과 필요한 경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또한 쓰레기를 밖에 내다 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
- 팀 관리인이 청소하는 시간 이후에 모임이나 활동을 가질 때에는 일요일을 위해 집회소를 정리해 놓는다.
- 모임이나 활동을 위해 직접 문을 열고 잠근다.
- 탁자를 정돈하고 의자를 편다. 또 모임 후 탁자와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일요일에도 그렇게 한다.
- 침례식을 위해 침례탕에 물을 채우고, 침례식이 끝나면 물을 빼고 청소한다.
- 성찬대를 청소한다.
- 마이크 및 비디오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 한다.
- 전등, 마이크, 오르간 및 기타 전기 장비를 켜고 끈다.
- 결혼 하례식이나 기타 교회 모임 이외의 승인 된 행사나 모임을 갖게 될 경우, 끝난 후 청소한다.
- 음식을 먹는 장소와 냉장고(제공되는 경우), 기타 부엌용품 및 도구를 청소한다.
- 도서실 및 교실의 비품을 청소하고 관리한다.
- 잔디밭 및 화단을 가꾼다.
- 집회소 및 주변을 청소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 참여한다.

헌납식 소식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헌납식

지난 2008년 6월 21일 토요일에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헌납식이 있었다.



120여 명의 회원이 나오는 부천 와드는 회원 수에 비해 부족한 공과 교실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에 증축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회 본부의 승인을 얻어 200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계속 된 공사는 올해 5월말에 끝났고, 부천 와드 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헌납식은 지역 칠십인인 이용환 장로가 감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용환 장로는 말씀에서 “새로 지어진 부천 와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잘 가꾸고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박지훈 부천 와드 감독은 “회원들과 구도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새로운 건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헌납식

2008년 7월 6일 일요일에는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헌납식이 있었다.

창원 와드의 헌납식 또한 증축 헌납식으로 1990년에 처음 준공된 후 18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편안하고 깨끗한 새 건물로 재탄생된 것이다. 창원 와드는 2007년 11월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했고 8개월의 공사 끝에 모든 회원들이 만족하는 건물이 지어졌다. 헌납식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가 감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윤환 장로는 헌납식 말씀에서 “헌납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이 건물처럼) 늘 새로워지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창원 와드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모임에 참석한 200여명의 회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건물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기대를 표했다. ■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특별 노변의 모임-2008년 6월 29일 일요일 마산 스테이크 센터에서 송평종 부산 선교부 회장의 환송 특별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마산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시작된 이 모임은 부산 선교부를 위해 봉사하고 마산 스테이크에 큰 도움과 사랑을 보여주었던 송평종 회장 부부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값진 기회였다. 송평종 회장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과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정규범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마산 스테이크
사천 지부 지부 회장 이진만(전임: 도재왕)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회장: 케네시 웨인 제닝스(전임: 송평종)